

I . 서 론

I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I.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에게 빨리 성장하라고 하면서 오래 기다리라고 한다.

인간의 성은 생물학적, 정신 심리적, 사회문화적, 윤리 도덕적 차원 등이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인격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Hendrick & Hendrick, 1987). 즉, 성태도나 성행동은 두 사람간의 친밀감이나 애정과 같은 사랑과 관련되는 요소이다. 또한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은 자존감의 발달이나 지배감의 발달과 관련되는 중요하고 건강한 발달의 한 측면이고, 청소년기에 형성되는 건전한 성태도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주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좌절감과 성적 일탈행위로 나타날 수 있다(Silverston, 1989).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해서 상당한 연구결과물이 축적되어 있다. 청소년들의 성행동, 성의식, 성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주제들 속에서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 더 이상 연구가 필요 없을 정도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들 연구들이 대체로 청소년들의 성을 비행과 관련시켜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우리 사회의 성윤리는 결혼한 부부간의 성만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전 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맥락에서 청소년의 성행동을 비행의 측면에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혼전 성관계나 성에 대한 관심,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성에 대한 태도를 비행이나 일탈의 견지에게 보는 경향이 강

한 것은 다음 두 가지로 그 이유를 설명해 볼 수 있다. 첫째로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서 외국의 성 풍조와 문화가 우리의 문화와 통합되기 이전에 먼저 우리 사회에 팽배함으로서 개인의 성에 대한 가치와 사회의 가치가 공존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사회의 구성원간의 성에 대한 갈등과 부적응의 경우가 많다. 둘째로는 청소년기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 즉 성인이 되기 전의 과도기에서 자신의 성적 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성에 대한 태도는 불안정하고 탐색적인 특성을 갖게 된다. 그런데 현재 우리사회의 일상에 만연된 성의 상품화는 성의 개방을 부추기고 있으며 성에 대해 보다 허용적이고 쾌락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었다. 특히, 청소년의 성관계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행동은 우리 사회의 성관념과 일치하지 않을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사회는 법이 인정한 부부간의 성관계 외에는 비윤리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법적 윤리적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장필화, 1989) 청소년들의 혼전성관계나 성에 대한 관심, 허용적인 성에 대한 태도는 일탈적인 행동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청소년기의 성을 비행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고(Karl & Gabriele, 2001),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성행동은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연구들 역시 이러한 사회적 경향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청소년의 성행동을 문제행동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짙다. 예컨대 음란물 접촉과 성행동과의 관련성(남영옥 · 이상준, 2002 ; 박윤창 · 김근영 · 윤진, 1996 ; 이명화, 1998), 인터넷과 청소년들의 성행동(김민, 2002), 청소년의 이성교제와 성행동(윤경자, 2002), 비행청소년들과의 접촉 정도와 성에 대한 태도(이상문, 1995),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김혜원 · 이해경, 2002 ; 한성현 · 이경선 · 이선희, 2000), 청소년들의 성의식이나 성에 대한 태도 전환을 위한 성교육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들(이은영, 1997 ; 정경

화, 1996) 등 청소년의 현재 성규범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성인의 시각에서 성을 다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아미(2001)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이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성행동을 문제행동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성친구가 있음, 패팅, 성행위, 손잡기, 포옹, 입 맞추기 등을 일반 문제행동과 동일하게 다루고 있다.

이러한 경향을 비단 국내 연구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좀더 개방적인 성문화를 가지고 있는 서구의 청소년 성과 관련된 문헌들(Fondell, Hu, Kowaleski-Johnes, Menaghan, Mott, 1996 ; Mensch, Clark, Lloyd, Erulkar, 2001 ; O'Donnell, O'Donnell, Stueve, 2001)을 봐도 청소년기의 성을 혼전임신이나 성병, 에이즈, 학교 중도탈락 등 일탈이나 비행과 관련시켜 접근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의 성행동은 아동과는 달리 임신과 관련되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즉, 청소년의 성행동은 임신으로 인한 낙태수술이나 십대 부모되기와 같은 문제뿐만 아니라 성병의 감염과 같은 문제와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조아미, 2001) 사회적으로 청소년의 성행동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성적 발달에 대한 일관된 사회적 규범이 부족한 상황에서 바람직한 성행동의 정도나 성태도에 관한 도덕적 판단들이 난무하고 이는 오히려 혼돈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어른들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의 성에서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정답을 가지고 있으나 청소년의 시각에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해서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즉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들의 경험과 상당한 거리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들은 청소년들이 문란한 성행위를 하고, 불건전한 성태도를 갖고, 위험할 정도로 성 상품화를 지향하고, 무책임한 성적 결과를 맞이한다고 단정 짓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성행동을 비행과 일탈의 견지에서 보는 경향은 우리 사회의 성에 관한 기준을 청소년들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낳았고 따라서 청소년들과 대화를 단절케 하는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방향으로 발산하게 함으로서 성비행을 보다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모르기를 기대하는 사회적인 기대와는 달리 그들은 이성교제와 성경험을 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제는 청소년들을 더 이상 무성적인 존재로 간주한다거나 비행의 측면에서만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성행동 중 · 고등학생들의 성행동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자 한다. 한국 10대의 성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안창선, 1994)에 따르면 이성교제율은 과거보다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중학교에 비해 고등학교시기에 이성교제 경험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으며 이성교제 시 성경험의 정도도 훨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스나 포옹을 해 본 경험이 중학생은 17.5%였으나 고등학생은 51.7%이고 애무를 경험한 중학생은 5.9%, 고등학생은 22.3%로 나타났다(충남청소년종합상담실, 1995). 즉,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이 이미 성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성에 대한 욕구를 ‘항상’ 또는 ‘자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숙, 1995). 이와 같은 결과는 성적성숙과 성적 감정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는 고등학교 시기임을 알게 해 주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기 성규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성관계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성인의 시각

에서 접근하는 국내외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성=비행’이라는 공식으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적합한 성행동의 규범, 즉 청소년들이 허용하는 자신들의 성행동의 한계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였다. 성인의 성행동규범을 청소년에게 적용시킴으로서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이성교제, 포옹, 키스, 성관계 등)의 성행동을 비행으로 규정함으로서 청소년들과 성인세대의 성행동규범의 차이를 오히려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범위

양적 조사연구를 하기 전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개념 틀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 성규범, 성행동, 성에 관한 대화, 성교육과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고,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에 관련된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문헌고찰에 근거하여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다음으로는 청소년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적 조사연구를 통해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파악하고, 이러한 유사성과 차이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세대의 성

- 청소년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일반적 경향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

2) 부모 세대의 성

-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의 일반적 경향
-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

3) 청소년-부모관계와 청소년의 성

- 청소년 세대의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일반적 경향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차이
- 부모 세대의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일반적 경향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차이

4) 성에 있어서 부모-자녀간 세대간 차이 및 유사성

5) 세대간 성행동규범 모델 검증

6) 정책적 제언

Ⅱ . 이론적 배경

Ⅱ

1.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2. 청소년의 성
3. 성행동규범의 세대간 차이 및 유사성
4. 청소년의 성태도, 성지식 및 성행동

II. 이론적 배경

1.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1) 세대의 의미

세대라는 말은 오래 전부터 시간, 노화, 연령집단, 사회구조 등과 관련된 사회현상을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사용되어왔다. 그 사용을 살펴보면 세대는 “집단내의 공통점”과 “집단간의 차이점”을 기술하기 위한 용어로 개념이 정립되어져 왔다(Bengston, Culter, Mangen, Marshall, 1985).

보편적으로 세대란 생물학적 연령을 기반으로 하여 역사적, 사회적 경험을 공유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으로 한 사회의 구성원은 끊임 없이 새로운 세대로 대체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세대가 갖는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은 이전 세대와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조성남 · 윤옥경, 2000).

특히 현대의 한국사회처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에 걸쳐 농경사회, 산업사회 그리고 정보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를 겪어온 사회일수록 서로 이질적인 세대가 경험하는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서로 다르고 이로 인한 세대 차이의 폭도 커질 가능성이 높아, 세대간의 갈등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그 만큼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의철 · 박영신 · 김명언 · 이건우 · 유호식, 2000 ; 문용린, 1996 ; 임희섭, 1984 ; Trab & Doddler, 1988).

세대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인 사회학적 연구는 Manheim(1952)에서 비롯된다. 그는 세대갈등을 사회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현상으로 보았다. Manheim은 세대란 사회구조 내에서 비슷한 위치를 점한

많은 개인들의 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동일한 연령집단의 세대개념은 계층이나 계급, 세계관적인 차이 때문이 아니라 동일한 시간체험에서 형성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공공의 시간체험에서 오는 세대의 힘은 일종의 사회적인 힘을 형성하며 그것은 삶에 있어서 계급간의 차이나 사회적인 불평등을 해소시켜 줄 수 있다.

세대를 구분하는데는 역사적인 변화를 기준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 문화에서 세대는 1900년과 1920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swing generation”이며, 1927년과 1945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은 대공황을 경험한 세대로 “silent generation”이다. 그리고 1946년과 196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직후의 세대로 “baby boomers”이며, 1965년과 1976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여성해방운동과 시민권 운동이 팽배했던 세대로 “baby bust”로 구분되고, 1977년과 1994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는 베이비 세대들의 자녀들로 “echoboomer”로 구분할 수 있다(Quadagno, 2002). 또 다른 세대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구성적인 측면에서 분류가 가능하다. 즉 코호트(cohort)는 인종, 성, 민족적 특성, 크기로 구분되어 세대는 결혼연령, 평균 가족 크기와 같은 인구학적 요인, 인종 구성, 인구학적 크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세대는 구조적 변화와 관련되어 질 수 있다. 즉 가족, 교육체계, 직업과 관련된 사회제도 변화는 각 세대의 경험에 영향을 다르게 미치게 된다(Quadagno, 2002).

한편 국내 연구에서도 세대의 개념을 정의하고자 하는 시도는 여러 논문에서 발견된다. 조성남과 윤옥경(2000)은 세대구분을 ‘코호트 진행 및 사회변동의 측면’과 ‘개인적 성장의 측면’, ‘인생구조 개념에 따른 세대구분’, ‘인생구조의 시기별 재배열’, ‘한국사회의 변동과 세대구분’ 등 다섯 가지 측면에서 세대를 각기 다르게 구분하고 있다. 구자숙, 한준, 김명언(1999)도 세대격차와 갈등의 사회 심리적 구조’라는 논문에서 세대의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다. 구자숙 등(1999)은 크게 4가

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첫째, 상호간 관계 위치로 아버지 세대와 자식 세대로의 구분, 둘째, 나이를 먹음에 따라 연령층이 함께 이동하는 동시 출생집단을 의미하는 경우, 셋째, 청소년 세대나 장년세대라고 부를 때처럼 생애순환주기(life cycle)의 어느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경우, 넷째, 4. 19세대, 유신세대 등과 같이 어떤 특정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총칭하는 경우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시간차원에서 크게 두 부류로 나누고 있다. 또한 세대란 한시대 안에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며 모든 개인이 특정한 시기 동안에 태어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처럼 세대의 개념은 여러 가지 분류가 가능하지만 어떤 분류도 연령이라는 개인적 시간을 간과하여 세대구분을 할 수 없어서 발달심리학자들은 연령에 따라 세대를 구분하고 있는 경향이다(Quadagno, 2002).

실증연구에서 세대를 구분한 것을 살펴보면, 신은숙(1976)은 유교의 규범체계가 의식 속에 강하게 내면화를 이룬 층이 기성세대이고, 현대의 민주교육을 통해 민주화가 그들의 의식 속에 새롭게 내면화되고 있는 층을 젊은 세대라고 구분하여 가치관의 대립을 파악하였다. 조혜선(1990)은 40세를 기점으로 신세대와 기성세대로 나누어 세대 차이를 비교하였고, 김경신(1988)은 일반적 세대별 구성을 20-30년 간격으로 보고 노년세대, 중년세대, 청소년세대로 구분하여 가족 가치관의 세대별 차이를 연구하였다. 또한 김윤정, 강인, 이창식(2004)은 청년, 중년, 노년으로 구분하여 노인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였고, 박재홍(1999)은 40세 이상 기성세대의 생애사의 질적 접근을 통한 연구에서 기성세대의 생애 주제가 경제적 궁핍, 도시이주와 직업활동, 사회갈등(성차별, 민주화운동, 세대갈등)의 세 가지라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세대를 구분하는 분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세대는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를 의미한다. 가족 내에

서 청소년 자녀와 부모는 발달상의 차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간의 차이, 부모로서의 역할과 자녀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른 어떤 집단보다 세대간의 차이를 많이 경험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세대간 차이란 세대간에 급격한 사회변동이나 다른 성장 배경에 의해 의식, 행동, 생활양식 등에서 괴리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그 부모세대는 서로 다른 사회화과정을 거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접속하며 살아온 세대들로 세대간 정서 및 시각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김명언 · 김의철 · 박영신, 2000 ; 김의철 · 박영신 · 김명언 · 이건우 · 유호식, 2000 ; Traub & Doddler, 1988).

그러나 한편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주장들(김경신, 1999 ; 정태연, 2000 ; Manning, 1983)이 제기되고 있다.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완전히 안정된 또는 정체된 사회구조나 문화체계는 존재할 수 없다는 기본전제 하에 각 세대간의 차이보다는 유사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Anderson (1973)은 청소년들과 그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속한 세대와 상대 세대가 각각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태도 면에서 서로 다르지 않았으나, 상대 집단은 자신의 집단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으리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가치관이 부모세대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실제적인 태도의 차이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대에 대한 그릇된 지각이나 믿음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에 대해 연구에 따라 각기 다른 주장을 하

는 것은 세대간의 비교에서 어떤 측면을 다루었는가와도 관련이 된다. 특히 인간의 성행동은 개인간의 은밀하고도 친밀한 행위이지만, 각 사회문화에 따라 적절한 성행동에 대한 규제가 있고, 금기(taboo)나 편견 또한 존재하고 있어(Cox, 1999) 다른 주제에 비해 세대간 차이가 심한 영역에 속할 것으로 본다.

2. 청소년의 성

1) 성의 개념

성은 sex, gender, sexuality라는 3가지 개념으로 대별되는데(이나영, 1999), 그 중 본 연구에서 성이란 청소년들의 생물학적 차원, 심리 사회적 차원, 행동적 차원, 문화적 차원, 임상적 차원을 다 포함하는 개념(전용호, 1996)인 sexuality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Giddens는 현대사회에서의 성은 ‘친밀감의 변형’ 이라고 언명한다. 그리고 친밀감의 변형은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경험의 격리현상’ 과 더불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화시키기 어려우면서도 그만큼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성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척도가 된다. 왜냐하면, 본래의 인간적인 면과 사회와 역사로부터의 구조적·역사적인 제한의 면을 성 개념, 성의식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성적인 것, 성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의 복합적이고 모순적인 개인의 정체감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김신자, 1996).

또한, Solomon은 성을 언어라고 보는 대표적인 철학자인데, 성의 정신적 측면을 강조하고 성을 다른 사람과 연관시키는 행위로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의하면 성관계는 우선 다른 사람

과 의사소통하는 수단이며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며, 추상적이고 실패하기 쉬운 말에 의한 언어보다 훨씬 간편하게 부드러움과 애정, 분노와 적개심, 우월성과 의존성을 표현할 수 있는 몸짓 언어라고 한다. 그리고 성관계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과 연출하는 행위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표현하는 수단이라며 성관계야말로 인간들의 삶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행위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오늘날의 성문화에서 성이 비인간적으로 왜곡되었다고 보는 것은 도덕성을 상실하였다는 의미 외에도 의사소통이 단절되었다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김신자, 1996).

우리나라의 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태도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향이 강하다. 강병우(1997)의 경우 성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동시에 다루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성태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간혹 성지식과 성태도, 성태도와 성행동을 같이 다룬 것도 있긴 하지만 주로 성태도에 연구의 초점을 두고 있다(조아미, 2001).

반면, 외국의 경우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이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지고 있어 성이라는 주제 하에 성과 관련된 여러 영역들을 주제로 잡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조아미, 2001).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청소년의 성은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

2) 청소년기의 성적 발달

청소년기는 급격하게 신체가 발달하는 사춘기부터 시작된다. 신장과 체중의 증가와 더불어 성적 성숙은 이 때 일어나는 신체변화 중에서 가장 현저한 것이다.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남자 청소년들은 몽정을 경험하기도 하고 여자 청소년들은 초경을 경험한다. 이

무렵부터 성에 대한 호기심이 증가한다. 청소년들은 성적 욕구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러한 자신의 변화된 모습에 적응하지 못해서 갈등을 겪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우리 사회에서 성이 결혼한 성인들에게만 허용되고 그 밖의 사람들, 특히 청소년에게는 금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혼란을 경험한다(조아미, 2001).

Freud와 Anna Freud 등 정신분석학자들도 청소년기 발달의 중요한 특징은 성적 욕구의 증대와 억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은 Freud의 성기기의 전제를 받아들여 성적 욕구라는 생물학적 성숙에 따른 심리적 갈등과 혼란을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의 불가피한 요인으로 보고 청소년기를 이에 대한 심리적 적응기간으로 정의하고 있다(송명자, 1995). Freud는 청년기를 성기기로 지칭하고 성호르몬의 분비로 인해 6세에서 12세에 이르는 잠재기 동안 잠복되어 있던 성적 욕구가 급격히 증가하며, 성적 쾌락을 즐기기 위해 강화된 id와 super ego 사이에서 ego의 균형기능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이 시기의 특징으로 보고 있다. 이리하여 자아가 균형적인 역할을 다하면 정상적인 인성으로 발전하고 그 반대의 경우 인성은 비정상적인 방향으로 이행한다고 하였다(Carr, 1991).

이처럼 청소년기가 아동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징 중에 하나는 신체적으로 성호르몬 분비 및 2차 성징 등 성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소년기에는 성인과 같은 생식능력을 갖게 될 뿐 아니라 성과 관련하여 성인의 역할이 가능한 시기이다. 결과적으로 청소년들이 성적 관심과 성적 욕구가 증대되는 것은 성호르몬의 분비가 왕성해지는 청소년기의 자연스런 발달현상이다. 반면 이로 인해 심리적 갈등과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겪는 시기이기도 하다. 특히 현대 청소년들의 경우 과거에 비해 빠른 신체적 성숙을 보이는데 반해 교육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성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기간까지의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어짐으로 해서 성적 갈등과 고민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성적 욕구를 조정하고 다른 방법으로 적절하게 분출할 수 있도록 하여 심리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필요한 발달과업이며 이러한 과업이 적절하게 수행되지 못할 때 정신건강상에 문제를 초래하기도 한다(홍봉선, 2000).

Jersild는 청소년의 성은 성적으로는 성숙되어 있지만, 사회적 통제와 미혼이라는 이유로 그 욕망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이른바 ‘성적 실업자’로서의 관점에서 성인의 성과는 다른 특성을 제시하였다. 첫째, 신체 생리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청소년은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불안과 호기심으로 이해하려고 하며, 둘째, 이것이 계기가 되어 성적 사상에 대한 탐구심이 왕성해진다고 하였다. 셋째, 이성에 대한 관심이 싹트며, 이성에 대한 접근과 교제를 하고자 원하지만, 교제라든가 연애 및 결혼에 대해서는 아직 충분한 이해가 서 있지 않으며, 막연히 자기에게 편리한 대로의 견해와 사고방식에서 행동한다. 넷째, 이 시기는 성욕의 배출구 때문에 문제를 갖는 자가 적지 않으며, 사회적인 성문화에 의한 자극이 강하여 이를 소화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문제가 크다. 다섯째, 특히 성인의 성 도덕관과 청소년의 성 도덕관의 차질 때문에 여러 가지 성적 악순환의 문제를 만들게 된다는 것이다.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기는 신체적 발달 단계에 있어서 중간단계에 이르게 되나 그들은 스스로가 어른의 신체와 같다는 생각을 하기 마련이다. 청소년기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이러한 조기 성인화의 경향인데, 조기성인화 경향은 건전한 사회문화적 측면보다는 성인 일각의 비행적 자태를 모방하려는 욕구 속에서 싹트게 되어, 흡연과 음주는 물론 도둑질이나 폭행 등의 행위로 발전하다가 성문제로 귀착하게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성적 경험이 옳지 않은 이유는 사람의 몸구조는 반복적인 욕구를 갖기 때문에 성행위를 경험하고 나서

는 성욕을 억제하기 힘들다는데 있다. 결국 청소년들이 너무 일찍 성행위를 경험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청소년기에 발달되어야 할 많은 것들을 잃게 된다고 볼 수가 있다.

이처럼 청소년 시기는 성적 도전과 내적 갈등에 직면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성문제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의 집단성폭행·강도·약물복용·가출은 몇몇 비행청소년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청소년이 범할 수 있는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즉 청소년 개인의 기질이나 성격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끊임없이 범죄와 일탈행위를 조장하는 사회환경이 청소년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많은 청소년 성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발달 가속화 현상이다. 신체적 성숙이 실제 연령에 어울리지 않게 이루어지거나, 정신적 성숙이 신체적 성숙을 따라가지 못하는 데서 갈등이 발생한다. 성적 성숙도는 여자는 월경, 남자는 몽정이 기준이 되는 바, 196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남녀의 평균치는 대략 만 13 -14세 이던 것이 최근에는 만 12세 전후로, 조숙한 경우에도 초등학교 4-5학년에서도 경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둘째, 매스미디어에 의한 성 정보 범람현상이다. 성 정보의 범람은 성적 자극을 주며, 그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한다.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을 얻는 대상은 주로 주간지, TV, 영화 등의 매스컴이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나는데, 매스컴은 일관성 있는 정보원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에 대한 왜곡된 지식 및 인식으로 탈선을 촉진하기 쉽다. 셋째, 가정과 학교의 성교육에 대한 갈등현상이다. TV·영화·잡지·소설·가요 등에서는 사랑과 연애를 예찬하고, 성의 신비로움과 즐거움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부모나 교사들은 아직도 전통적인 유교 윤리관에 영향을 받아 성을 입 밖에 내지 않도록 금기시하고, 성은 불결하고 떳떳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청소년의 성에 관한 관심을 구속하려 한다. 이러한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현실에 맞지

않는 성에 대한 지도와 성가치관의 잘못된 전달은 청소년들의 성문제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김신자, 1996).

결국 청소년기의 성은 성적 욕구의 충족을 위한 심리, 생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자신의 성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심리, 애정적 욕구의 표현이며 가족과 분리되고 아동기의 역할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궁극적 목적도 있어(김기환, 1999) 여전히 우리 사회는 청소년들의 성을 문제행동의 시각에서 접근함으로써 정상적 발달과업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성에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부모-자녀간의 성에 대한 대화, 성교육을 중재변수로 보고 성행동규범의 세대간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3. 성행동규범의 세대간 차이 및 유사성

1) 성행동규범

성행동규범이란 성과 관련된 윤리, 의식, 철학 및 사회적 규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어떤 현상에 대한 태도와는 구별하여 특정 연령집단, 혹은 사회의 특정 집단의 성행동에 대한 사회적 허용성을 의미한다.

Rubin(이문희, 1993 재인용)은 성의식을 6가지로 구분 지어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전통적인 억압적 금욕주의’로서, 성이라는 그 자체는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 보아 결혼에 있어서의 성행위도 생산의 목적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한다고 믿는 견해이다. 둘째, ‘계몽된 금욕주의’로서, 금욕을 자기 탐닉에 대한 안정장치로 보아, 자기 통

제, 규율, 자기지배 등을 성욕구에 있어서도 강조하는 견해이며, 셋째, ‘인본주의적 자유주의’로서 대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성의 의미와 의도를 중시하는 일종의 상황윤리라고 볼 수 있으며, 성 그 자체는 나쁘지도 좋지도 않다는 것이다. 넷째, ‘인본주의적 급진주의’로서 사람에 대한 성의 영향을 강조하면서 모든 젊은이들이 완전한 성적 해방을 가질 수 있도록 사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 견해이고, 다섯째, ‘쾌락주의’는 성은 즐거운 것이며, 더 많은 즐거움이 있으며 더 좋은 것이므로 더 많은 성행위를 가지라고 주장하는 견해이다. 여섯째, ‘무규범주의’로 혼전성교, 혼외정사, 일부일처제나 성의 대한 어떤 규제도 그 이유가 무엇이든 사람에 대해서 해를 끼치고 있거나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황경식(1994)은 성태도를 보수주의적, 자유주의적, 급진주의적 성태도로 구분하였다. 자유주의적 입장은 성이 일차적으로 쾌락을 위한 것이기는 하지만 아무런 제약도 없이 만족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유주의자들은 성이란 서로 합의하는 성이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하고, 혹은 적어도 그들이 행하는 일이 자신에게 해롭지 않음을 알 정도로 충분히 성숙한 자들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성은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되고, 또한 그것은 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급진주의자들은 성의 목표가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점에서 자유주의자들과 함께 하지만 이들과는 달리 성의 진정한 해방을 위해 새로운 성의 기술이나 성의 파트너와 실험을 함에 있어서 어떤 제한이나 제약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급진주의자들은 쾌락을 위해서라면 어떤 제약도 무시할 용의가 있는 까닭에 자신의 의지를 타인에게 강요하거나 타인을 상해하는 성행위까지도 용납하고자 한다(황경식, 1994).

또한 Reiss(1960, 이상문, 1995 재인용)는 다양한 성의 가치체계를 근거로 하여 혼전 성행위에 관한 도덕적 기준을 절제(abstinence), 애

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 affection), 비애정적 허용성(permissiveness without affection), 그리고 이중적 기준(double-standards)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 절제는 어떤 경우에 있어서든지 남녀간의 혼전 성관계는 잘못된 것이라는 도덕적 기준이다. 이러한 절제 기준은 문화적 이념형성으로서 많은 사회에서 공식적 성규범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기준은 서구사회에서 공식적인 성규범으로 지지되어 왔으며, 한국사회에서도 지배적인 성규범으로 여겨지고 있다. 둘째, 애정적 허용성은 사랑 혹은 강한 애정이 동반될 때의 혼전 성관계는 정당한 것으로 보는 기준이다. 이러한 애정을 가진 허용성의 기준은 서구 사회의 자유주의적 경향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한 혼전 성관계는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이 기준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있다. 셋째, 비애정적 허용성은 어떤 신체적 충동이 있다면 애정의 정도에 관계없이 혼전 성관계는 정당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 비애정적 허용성의 기준은 성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는 경우이다. 넷째, 이중적 기준은 혼전 성관계가 남성의 경우에는 허용되나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기준을 말한다. 이러한 이중적 기준이 남녀간에 성적 허용성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이다. 즉, 남성이 여성보다 성적으로 더 허용적일 것이다. 이 네 가지 기준 중에서 특히 이중적 기준은 우리 사회에서 널리 묵인되고 있는 기준이다.

홍봉선(2002)은 청소년기의 성을 8가지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순결지상주의의 성: 결혼한 상대방하고만 이루어지는 성을 말하는 것이므로 대부분의 청소년의 성은 전면 부정된다. 둘째, 결혼을 전제로 하는 성: 성행동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성 확보로 당장은 정신적 갈등을 회피할 수 있으나 결국은 성을 결혼과 연결시킴으로써 청소년에게는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 셋째, 순결과 사랑이 결합된 성: 순결은 중요하나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결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끼리의 성행위만 가능하다는 입장. 넷째, 상호간의 자기결정이 절대시되어 이루어지는 성: 상호 신뢰적인 관계가 이루어진 후 그러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여 쌍방간의 자유의사 결정이 최고의 가치가 되어 이루어지는 성, 다섯째, 자유주의적 입장의 성: 성행위는 인간의 본능이며 성행위는 자유스럽게 이루어져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견지함으로써 성개방의 풍조를 따른다. 상대방의 의사를 존중하는 형태를 띠거나 설득하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성적 행위만이 우선시 되는 성: 성행동에 관한 특별한 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상황과 여건이 되고 상대방이 싫지만 않으면 이루어지는 성. 일곱째, 강제화 되어지는 성: 자신의 성적 충동이 있으면 상대방의 의사를 불문하고 강제하는 성으로서 성폭행의 형태로 나타나는 성. 여덟째, 사이버 성행동: 미래의 성으로서 사이버 상에서 이루어지는 성행동이다.

현재 우리 사회의 기성세대는 첫 번째의 입장의 순결지상주의의 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입장에서도 기성세대와 사회의 요구와 입장에 동조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을 전제로 하는 성과 순결과 사랑이 결합된 성의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 이는 성의식의 개방화와 관련이 있다. 자유주의적 입장의 성의 입장은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으나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본다(홍봉선, 2002).

또한 홍봉선(2002)은 전통적 성가치관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청소년에게 적합하지 않으며 청소년성문제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 중심적인 시각으로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의 성을 규정하여 여성에게는 순결과 정절을 강조하고 남성에 대해서는 축첩, 혼외관계, 매춘과 같은 성적인 자유를 허용하는 이중적 성규범을 발달시킨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는 성의 이중구조가 더욱 심하여 공적인 영역에서는 성에 대한 논의가 금기시되거나 사적인 영역에서는 특히 남성의 경우 성의 방탕이 용인되고 조장되기 까지 한다. 그러나 여성에게 강조되는 순결이데올로기는 여성을 정숙

한 여성과 부정한 여성으로 이분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이러한 이중적 성규범은 성폭행 발생을 세계 제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얻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유가호, 1997).

이러한 전통적인 성윤리로 인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성을 부정적이고 음성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성적 욕구와 관심에 대하여 죄의식과 심한 갈등을 겪는 동시에 현대사회의 개방적이고 상품화된 성문화와 양성차별적인 성역할로 인해 성을 쾌락과 매매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된다. 이러한 왜곡된 성가치관은 성폭력과 성범죄를 증가하게 하는 원인이 되며 청소년의 발달장애를 유발하고 인간존엄과 평등성을 파괴하는 사회문제의 근본 원인이 되기도 한다.

2) 성행동 규범에서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성행동규범이 성윤리, 성철학을 의미한다 해도 경험적 연구에서는 성행동규범이 성태도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청소년과 부모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세대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연구시점에 따른 성태도를 분석하였다.

1970년대 연구(오옥자, 1977)에서는 여학생의 경우 95%가 혼전 순결을 지지하였으나, 1980년도에는 81%(이계화, 1988)와 81.3%(정성채, 1981), 1990년도에는 67%로 떨어져(김영희, 1993) 결혼 전 순결, 동정애에 대한 태도가 허용적으로 변화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대 중반 이후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는데, 서울 지역 중·고생 1,17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성교제 실태 조사에 의하면(이영숙 · 이춘화 · 이정애, 1996), 전체 학생 중 약 45%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순결을 따지는 것 자체가 낡은 사고방식이라고 대답하였다. 고려대 의대(1996)에서 13~19세 여성 11,424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47%정도가 성 관계와 결혼은 관계가 없고, 27%정도는 사랑하면 성 관계를 허용할 수 있다고 응답한 것에 반하여, 결혼 전까지 허용할 수 없다가 11%, 혼전 성 관계는 갖되 결혼을 꼭 해야 한다는 9%로 순결관이 많이 감소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이창식과 김윤정(2003)의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결혼할 사이라면 성관계를 가져도 된다는 응답이 46.1%로, 결혼할 사이라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응답 26.8%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70년대에 비해 90년도 중반 이후에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가 상당히 허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순결관을 고집했던 이전 세대와는 달리 성에 대해 허용적인 청소년들은 성행동을 비행이 아닌 일상적인 경험의 하나로 치부해 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4. 청소년의 성태도, 성지식 및 성행동

1) 청소년의 성지식

Bruess와 Greenberg(1988, 홍봉선, 2000 재인용)는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 단계에 걸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비언어적 성교육이 언어적 성교육만큼 중요하며 정확한 성 정보나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성지식이란 사춘기와 성적 발달에 관련된 지식으로서, 특히, 청소년기에는 사춘기와 성적 발달에 관한 지식의 정도가 건강한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그 이유로서는 첫째, 성지식은 청소년들이 사춘기 동안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지식을 미리 습득함으로써 사춘기

의 변화에 심리적인 적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여아들이 첫 생리가 시작되기 전에 생리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사춘기의 심리적 적응이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지식은 성행동으로 유발 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다. 영국의 한 연구보도에 의하면 16세 미만의 십대 임신부 60명중 60%는 임신과 피임에 관한 사실 자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사춘기와 성적 발달에 관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사전에 조사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김현정 · 이귀옥, 2000).

성지식 습득의 가장 바람직한 근원은 학교를 통한 현실에 알맞은 체계적인 성교육이다. 우리나라의 학교 성교육은 1960년대의 중등학교 가정 교과서에 여성 생리현상에 대한 기초 지식이 언급되면서 시작되었고 그 후 결혼, 가족 관계, 보육, 임신 등의 단원이 보강되면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만(이난영, 1992), 더 이상의 발전 없이 지금까지 피상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 성교육을 여성에게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는 일반인들의 완고성이 학교 교육 과정에도 반영되어 남자 중학교에는 성교육이 매우 소홀히 이루어지고 있다. 남학생의 성교육 필요성에 대한 요구에 비해 성교육을 받는 학생이 20% 정도에 불과하며, 남학생들은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이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으며(70%), 성교육 내용에 대해서도 불만족(75%)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서 남학생의 경우 학교나 가정에서의 성지식 습득이 저조하여 또래집단이나 대중매체, 음란물 등의 비형식적인 경로를 통해 성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도 생리적 특징, 이성간의 예절과 이성 문제, 10대의 성문제와 성적 사고,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원하고 있다(김현정 · 이귀옥, 2000).

청소년의 성지식을 연구한 몇몇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지식

이 성지식 내용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김현·이귀옥, 2000). 즉, 여학생의 경우 남성의 생식기, 피임, 성병 등 세분화된 성지식을 대부분이 모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학생의 경우는 정자·난자의 모양, 수, 운동에 대한 지식과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지식은 잘 알고 있는 반면, 남자의 사정, 몽정, 유정과 여자의 월경, 처녀막 등 남녀의 생리현상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였다. 남녀 모두 피임의 뜻, 방법에 대한 지식과 성병의 감염 경로 및 예방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모른다고 나타나 성지식의 내용에 따라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한편,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소야자(1986)의 연구에서는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성 경험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며, 성지식이 성태도,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보여 주었다.

2) 청소년의 성태도

인간의 성이 성을 에워싼 또는 그와 관계되는 종합적인 담론, 문화, 관습, 제도 등의 의미로 발전하여 포괄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오생근·윤혜준, 1998)과 마찬가지로, 성의 인지적인 요소인 성태도 역시 각 개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조아미(2001)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태도를 보수형, 허용형, 쾌락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권현주(1998)는 Q방법론을 이용하여 개방형, 순결중시형, 애정표현중시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성태도는 성 차이가 분명하다. 먼저, 김병준(1993)은 한국 10대 청소년의 성성(sexuality)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남학생들은 반규범적 성관계(혼전 성관계, 혼전 동거, 혼외 성관계 등)에서 개방적이고 여학생들은 친교적 성관계(자아개방과 친교를 강조한 성관계)에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며, 이러한 개방성은 15세 이후에 두드러진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가 다수 있는데 김명희(1983)의 연구나

김영화(1991)의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순결의식이 높음을 보고하였고, 이상문(1995)도 남학생들의 성에 대한 허용성 정도가 여학생들에 비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 더 나아가서는 부모의 성별의 비율도 균형있게 맞추므로써 성태도나, 성지식, 성행동규범에서의 남녀간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의 성태도와 관련된 연구들에 의하면 남성은 성을 육체적 행위로 보고 여성은 감정적인 친밀감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밝히고 있어(김주희·송은영·강성희, 2003 ; 이창식·김윤정, 2003), 성의 이중성이 청소년들 사이에도 널리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의 성행동

최근으로 올수록 청소년들의 성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한국의 11세-24세까지의 청소년 중 0.1%에 해당하는 10,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정원식 등, 1985)의 연구에 의하면 입맞춤, 포옹을 경험한 사람은 16.8%에 이르고,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11.2%로 나타났다. 전국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닌 남녀 학생 3,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재창 등, 1986)의 연구에서는 입맞춤과 포옹경험자는 7.2%, 성관계를 가진 사람은 3.8%로 나타났다.

90년대로 오면 청소년들의 성관계비율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국궐립조사연구소(1990)가 13-18세 청소년 1,5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관계 경험은 6.3%로 보고되었고, 1993년에 서울시내 중고생 38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4.8%(김영희, 1993)로 조사되었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6)이 서울시내 13개 고교생 3,05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남학생의 16.7%, 여학생의 5.4%가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관계 경험이 있는 남학생

은 2명 이상의 대상과 성관계를 가진 비율이 81.1%, 여학생의 경우에는 66%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은 또 다른 다수의 성파트너와 성관계를 갖고 있어 청소년들은 문란한 성행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7년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강영삼, 이기중 및 조원호(1997)의 연구에서는 17.9%가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성관계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 류진혜, 강재연 및 김재환 등(1995)의 연구에서는 19.3%, 성한기(1996)의 연구에서는 26.7%로 조사되었다. 또한 연문희 등(1997)이 대학생 2,3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서는 전체의 73.2%가 이성친구를 사귀는 경험이 있고, 그 중 27.9%는 애인과 성관계를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가장 최근의 연구(김주희 · 손은일 · 강성희, 2003)에서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은 34.2%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청소년들의 성관계비율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 Santrock(1996, 조아미, 2000 재인용)에 의하면 15세의 경우 남자는 16.6%, 여자는 5.4%, 16세의 경우는 남자는 28.7%, 여자는 12.6%, 17세의 경우 남자는 47.9%, 여자는 27.1%, 18세의 경우는 남자는 64%, 여자는 44%로 나타났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는 외국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약한 것을 알 수 있으나, 서구의 풍조가 급격히 우리사회의 청소년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도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성관계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을 제외한다 해도 최근 연구일수록 청소년들의 성관계 경험비율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관계만이 아니라 이성친구와의 교제, 포옹, 키스 등과 같이 다양한 차원의 성행동을 포함시킨다면 그 비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일 것이다. 이러한 경향에서 청소년들은 부모세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성행동

을 문제행동이나 비행으로 여기지 않을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고, 따라서 과연 청소년들은 어느 수준의 성행동까지를 자신의 발달적 측면에서 그리고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러한 연구는 청소년들의 성을 그들의 시각에서 조명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을 규명하고 또한 청소년들을 보다 바로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선결과제이다.

5.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

1) 청소년기의 성에 있어서 부모-자녀관계의 중요성

Bruess와 Greenberg(1988, 홍봉선, 2003 재인용)은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성적 존재임을 인정하고 각 단계에 걸쳐 살아가는 삶의 양식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비언어적 성교육이 언어적 성교육만큼 중요하여 정확한 성 정보나 지식을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비언어적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관계로 볼 수 있다. 개인의 성장과정에 있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가족환경이 청년기의 일탈적 성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즉, 부모의 성격특성, 가족구조, 가족결속도, 가족성원의 가치와 태도, 가족간의 상호작용 등이 성행동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적 발달이 왕성해지고 성적 충동의 조절을 학습하는 청소년기에는 가족보다는 가족 외의 사람들, 즉 또래친구, 선배, 혹은 대중매체로부터 성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개인이 그러한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내면화시키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가는 그의 성 가치관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이 때 개인의 성 가치관은 다른 종류의

가치관의 영역에서와 마찬가지로 부모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김주희 등, 2003).

대부분의 한국의 부모들은 아직까지 자녀에 대한 성교육에 있어 개방적이지 못하다.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자아존중감과 같은 심리적 특성들이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문제의 영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식과 행동을 결정하는 데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성태도 형성에 있어 가족관계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부족하다. 단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성경험이 달라진다는 보고가 있다(김현숙, 1999 ; 박희성 · 이지숙 · 박초아 · 정민자, 1995 ; 이상문, 1995). 즉,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가 동거하는 경우보다 성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김주희 등(2003)은 부모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대학생의 성태도의 차이는 성태도의 하위요인 중 허용성 영역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도구성이나 교류성, 책임성 영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보고를 하였다.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에 상관 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윤경자, 2002). 남학생들의 경우 부모와의 애착이 약할 때 성행동이 증가한 반면, 부모의 지지는 성행동과 관련되어 있지 않다는 결과도 있다. 여학생들의 경우 어머니와의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은 성행동이 늦게 발생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임신의 위험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관계가 없다는 연구결과가 혼재해 있다. 또한 부모의 지도 감독 역시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윤경자, 2002). 부모가 자녀의 친구들을 대부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모니터할수록 자녀의 성행동이 늦게 나타났으며, 부모의 감독이 소홀할 때는 자녀의 성행동이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들이 더 늦은 시기에 성행동에 관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고, 성교

의 횡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Jaccard, Dittus, & Gorden, 1996).

2) 성교육 및 성에 관한 대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변인을 성과 관련시켜 행해진 연구들(김주희 2003 ; 윤경자, 2002 ; 이현구, 1996 ; 장미숙, 2000 ; 허재경, 2001)이 있으나 대부분 비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이른 성경험 혹은 성관련 일탈적 행동이 부모와의 부정적인 의사소통 유형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부모의 생각, 태도 등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자녀의 성관련 가치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침으로서 비행 청소년의 성관념과 관련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민하영, 199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주희 등(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와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자녀는 성에 대하여 좀 더 허용적이고 성을 도구로 간주하는 경향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반면,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잘 될 때 자녀가 성에 대하여 좀 더 책임감을 갖게 되고 성을 남녀간의 친밀한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보게 된다고 하였다. 더 나아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대학생의 성행동경험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와의 개방적인 의사소통은 자녀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고등학교의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성에 관한 대화는 성경험 유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쳐서, 부모와의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할수록 성경험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경험이 있는 여학생들의 경우는 부모와의 성에 관한 대화가 성경험의 많고 적음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윤경자(1995)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한 해석을 윤경자(2002)는 Daring과 Hicks(1982)와 Scales와 Everly(1977)로부터 끌어냈다. 즉, 대부분의 부모의 성에 관한 메시지는 부정적으로 자녀에게 전달되며, 자녀의 성별에 따라 이중기준을 전달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모호한 메시지를 전달받기 때문으로 봤다. 혹은 성에 관한 가족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전달되기 보다는 규칙이나 부모의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았다.

국외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의사소통 유형이 자녀에게 개방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될 때 자녀의 성태도의 허용성수준이 낮아지고 혼전 성관계 시기가 늦춰지며, 의사소통 유형이 폐쇄적이고 일방적일 때 자녀의 성 태도 허용수준이 높아지며, 혼전 성관계빈도가 증가된다(White & DeBlassie, 1992, 김주희 등, 2003 재인용). 또한 가족간의 의사소통 패턴과 양육방식도 허용적 성태도와 성행동을 일찍 시작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밝혀지고 있다(정종희, 1983 ; Thornton, Alwin, Camburn, 1983).

이처럼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선행연구들이 다른 의사소통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개방성,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 일반적인 의사소통과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계를 보고 있다. 성과 관련된 의사소통을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제한점이 있다.

3) 부모의 성태도

부모의 자녀 성행동에 대한 태도는 자녀의 성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윤경자, 2002).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혼전 성행동을 인정하지 않을 때 자녀는 성교를 경험하지 않으며, 청소년 자녀가 부모의 성태도와 자신의 성태도와 비슷하다고 지각할수록 성행동을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부모의 성규범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영향을 주는데, 부모의 성규범이 청소년 자녀에게 효과적으

로 영향 미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밀접하고 지지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Weinstein & Thomoton, 1989).

10~20세 자녀와 부모의 성태도에 관한 연구(정중희, 1983)에 의하면 부모와 자녀의 성태도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는데 특히 여자의 경우 부모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성태도 고정관념이나 행동도 아동의 성태도 형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정 내에서 아버지와 자녀관계는 자녀의 성태도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변인임을 제시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주희 등(2003)의 연구에서도 부모의 성태도는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를 하였다. 부모가 자녀의 혼전 성관계에 대하여 허용적일 때 대학생 자녀의 성태도만이 아니라 성행동에 있어서 허용적이고 도구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고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윤경자(2002)의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성태도 유사성은 청소년들의 성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결과의 방향이 혼재되어 있다.

그러나 부모의 청소년 자녀의 성에 대한 태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청소년기의 성행동, 보다 구체적으로는 성관계, 혼전 성관계에 대한 허용성에 관한 단순한 문항만을 가지고 분석함으로서, 부모 자신의 성태도와와의 관련성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부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아니나, 일반성인들의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연구들(김원중, 2000 ; 김혜원, 2002)에 의하면, 청소년의 성에 대한 기성세대의 부정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김혜원(2002)은 고등학생들의 성관련 경험에 대해 고등학생의 응답과 성인들의 지각을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들이 실제 경험하는 성관련경험(이성교제, 자위, 성교, 피임, 임신, 매매춘, 음란물, 성병)보다 성인들은 보다 더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들이 실제 경험하는 정도보다 성인들은 고등학생이 더 많이 경험했을

것이라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들은 청소년의 성관련 행동(이성교제, 자위행위, 성관계)의 시작 시기를 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성인들은 청소년 성행동의 원인을 청소년들의 충동적인 성향만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실제 중요하게 꼽는 수동성(상대가 원해서)과 정서적 요인(상대를 사랑해서)에 대해서는 간과하는 편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성인들이 청소년을 왜곡되게 지각하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기보다는 제한된 정보나 주변의 일화를 통해 얻는 주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성인들의 부정확한 정보와 왜곡된 인식들로 인하여 그들은 청소년의 성행동과 성문화를 비난하고 거부하기 쉽고 청소년을 무능력하거나 보호적 대상으로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원중(2000)은 혼전 미혼 남녀의 육체적 접촉은 포옹과 키스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하지만 애무와 성관계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처럼 일반 기성세대들의 청소년의 성에 대한 부정적이고 보수적인 경향과 부모세대의 성태도는 청소년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영향 미친다는 연구결과는 부모세대의 성규범, 성태도 등이 청소년의 성규범, 성태도, 성행동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게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과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성행동 규범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Ⅲ . 연구방법

Ⅲ

1. 자료수집
2. 연구대상의 특성
3. 측정도구
4. 분 석

III. 연구 방법

1. 자료수집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로 구성된 총 300명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04년 5월 24일부터 2004년 6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과 천안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생용 180부를 배부하였고 부모용 180부는 그 학생들을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 편의표집을 하였다. 즉, 남자고등학생과 아버지용 45부, 남자고등학생과 어머니용 45부, 여자고등학생과 아버지용 45부, 여자고등학생과 어머니용 45부를 배부하였다. 총 155쌍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2쌍의 데이터는 자료 분석에 적합지 않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53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남자고등학생 76명, 여자 고등학생 77명, 아버지 69명, 어머니 81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2. 연구대상의 특성

<표 III-1>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N=153>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남	76	49.7	성적	상	32	20.9
	여	77	50.3		중	94	61.4
연령					하	26	17.0
	15	17	11.1	출생 순위	첫째	82	53.6
	16	40	26.1		둘째	51	33.3
	17	41	26.8		셋째	13	8.5
	18	49	32.0		넷째	5	3.3
종교	19	5	3.3	경제 수준	하	7	4.6
	기독교	45	29.4		중하	31	20.3
	천주교	8	5.2		중	96	62.7
	불교	26	17.0		중상	17	11.1
	무교	73	47.7		상	2	1.3
	기타	1	.7				

남자고등학생이 49.7%, 여자고등학생이 50.3%로 남녀비율이 각각 절반정도이다. 연령은 15세에서 19세까지로 주로 16, 17, 18세 많고 15세, 19세 순이다. 고등학생들의 종교는 종교가 없는 경우가 47.7%로 가장 많고 기독교, 불교순으로 나타났다. 학교성적은 중간정도라고 응답한 학생이 61.4%로 절반을 넘고 그 다음이 상, 하의 순이다. 고등학생들의 출생순위는 첫째가 53.6%로 가장 많고, 가정의 경제수준을 중이라고 지각한 경우가 62.7%이다(표 III-1).

<표 III-2> 부모의 일반적 특성

<N=153>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성별	아버지	69	45.1	거주지	대도시	60	39.2	
	어머니	81	54.9		중소도시	9	5.9	
연령						농촌	81	52.9
	30대	8	5.5	소득	200만이하	91	59.5	
	40대	121	82.9		201-500	59	38.6	
	50대	17	11.6		501만이상	3	2.0	
	평균 45.28(4.35)		평균 262.04(140.97)					
학력	무학	1	.7	직업	전문직	7	4.6	
	초졸	11	7.2		사무관리	9	5.9	
	중졸	26	17.0		판매서비스	23	15.0	
	고졸	87	56.9		자영업	41	26.8	
	대졸이상	24	15.7		전업주부	37	24.2	
					기타	33	21.6	
종교	기독교	30	19.6	결혼 상태	기혼	146	95.4	
	천주교	9	5.9		이혼	2	1.3	
	불교	51	33.3		별거	1	.7	
	무교	57	37.3		사별	1	.7	
	기타	3	2.0					

고등학생들의 부모는 아버지가 45.1%, 어머니가 54.9%로 어머니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온 경우가 대략 10%정도 더 많다.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82.9%로 가장 많으며 평균 45세이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56.9%로 가장 많고 대졸과 중졸이 비슷한 수치를 이룬다. 부모의 종교는 무교, 불교, 기독교 순이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경우가 52.9%로 절반정도에 이른다. 가정소득은 평균 262만원이며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95.4%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결혼가정보다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2).

3.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청소년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제작하였다. 청소년용은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부모와의 성에 관한 대화, 성교육빈도, 성교육 내용,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용은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자녀와의 성에 관한 대화, 성교육빈도, 성교육내용,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구성하였다.

1) 성행동규범

성행동규범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허용성 수준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성행동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성행동 허용 수준을 측정하였다. 성행동규범은 이성교제, 포옹, 키스, 애무,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의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절대반대(1점)에서 적극허용(5점)으로 측정하였다.

2) 성지식

최경숙(2003)과 배성미(2002)의 성지식 척도에서 문항을 선별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3점 척도이다. 분석에서는 정답은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을 주어 채코딩했으며, 0점에서 19점의 분포를 가진다.

3) 성태도

조아미(2001)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선별은 조아미(2001)의 척도를 이용한 본 연구자의

두 번에 걸친 연구(이창식·김윤정a, 2003; 이창식·김윤정b, 2003)의 자료를 각기 따로, 그리고 합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선별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형 척도이며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요인을 구성하기 위해 청소년의 성태도 18문항을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젠 값이 1이상인 요인 3개가 추출되었고 보수적 성태도와 개방적 성태도, 이중적 성태도로 명명하였다. 요인의 추출은 Maximum likelihood로 하였고, 요인회전은 Varimax 방식으로 하였다.

‘보수적 성태도’요인에는 성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혼전 성관계는 남녀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결혼 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이다’ 등의 6개 문항들이 포함되었고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84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개방적 성태도’요인에는 대체로 성에 대해서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그럼에도 남녀간의 성관계에는 파트너에 대한 애정적인 요소도 중요시하는 것으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성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연인들의 피부접촉은 애정표현이다, 남녀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등의 문항들이 포함되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7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중적 성태도’요인에는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등의 전체 4개 문항이 포함되었으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52로 지나치게 낮아 분석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표 III-3> 청소년 자녀 성태도 요인

문 항	요 인			신뢰도
	보수적 성태도	개방적 성태도	이중적 성태도	
· 결혼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785 .727 .726 .679 .589 .484			.84
·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한 것이다. ·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남녀 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 연인들의 스킨쉽은 애정표현이다.		.755 .585 .575 .555 .550 .449		.77
·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진다. · 과도하게 노출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 · 여자는 성적 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야 한다.			.551 .482 .431 .416	.52
고유치	3.321	2.482	1.410	
설명력	18.452	13.790	7.832	

<표 Ⅲ-4> 부모의 성태도 요인

문 항	요 인			신뢰도
	보수적 성태도	개방적 성태도	이중적 성태도	
·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 결혼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647 .608 .553 .550 .534 .516			.73
·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 연인들의 스킨십은 애정표현이다. · 남녀 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한 것이다.		.678 .582 .534 .513 .447 .371		.69
·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진다. ·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 과도하게 노출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 · 여자는 성적 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야 한다.			.715 .376 .147 .203	.31
고유치	2.452	2.174	1.179	
설명력	13.625	12.081	6.551	

또한 청소년과 부모간의 성태도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청소년과 부모의 성태도를 각기 따로 요인 분석 하였으나 요인의 내용타당성의 측면에서 청소년의 요인분석결과가 보다 타당하여 부모의 성태도의 하위요인문항을 청소년의 하위문항과 동일하게 맞추었다. 부모의 보수

적 상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이 .73, 개방적 상태도는 Cronbach's α 값이 .69이다.

4)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 관계는 성교육빈도, 성교육내용 및 성에 관한 대화로 측정하였다.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성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 성행동규범에 대해 대화를 하는가? 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성교육을 받는 적이 있는가는 '전혀 없다(1점)에서 자주 있다(4점)'으로 측정하였고, 성교육 다양성은 '순결교육, 건전한 이성교제, 성병, 생식기구조 및 생리, 성충동에 관한 내용, 음란물에 관한 내용, 성폭력이나 성희롱에 관해서, 결혼과 관련된 내용, 자위행위, 성도덕(성윤리), 남녀의 성역할 차이, 피임교육' 각각에 대해 유무로 측정하였고 분석에서는 합산하여 사용하였다. 성행동규범에 관한 대화는 '전혀 하지 않는다(1점)에서 자주한다(4점)'로 측정하였다.

5) 사회인구학적 변수

청소년의 성별, 연령, 종교, 성적, 형제순위, 경제수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거주지, 한달 평균 소득, 직업, 결혼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분석

양적 조사의 분석은 Window용 SPSS 11.0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1) 청소년과 부모의 성태도, 성행동, 성규범 등의 일반적 특성

각 세대의 일반적 특성과 성행동규범, 성태도, 성지식, 부모-자녀 간의 성대화에 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그리고 각 척도의 요인을 추출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등 기술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각 세대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규범, 성에 관한 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이검증을 하였다.

2) 청소년의 성행동경험수준과 성행동허용수준간의 관계 파악

청소년이 경험한 성행동 경험수준과 청소년의 성행동으로서 올바르게 생각되는 성행동의 허용 수준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paired t-test,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모델검증

성행동규범의 세대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IV

1. 청소년 세대의 성
2. 부모 세대의 성
3.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성
4. 청소년-부모 세대간 성의 차이
및 유사성
5. 세대간 성행동규범에 관한 모델

IV. 연구 결과

1. 청소년 세대의 성

1) 청소년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각 문항별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표 IV-1에서 표 IV-4).

표 IV-1은 청소년들이 자기 또래의 청소년들에게 허용할 수 있다고 지각하는 성행동규범이다. IV-4의 성행동경험수준과는 달리 허용수준은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가벼운 정도의 성행동인 손잡기, 포옹, 키스는 중앙값을 3점으로 봤을 때 모두 중앙값 이상으로 허용수준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애무나 성관계 등 심각한 정도의 성행동은 5점 만점에 1점대로 상당히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며 임신, 낙태, 출산과 같이 성 비행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을 보면 손잡기, 포옹, 키스와 같은 가벼운 성행동에 대해서는 약간 허용과 적극 허용이 대략 50%에서 87%로 허용하는 경향이 강하나, 애무부터는 절대반대가 50%대를 넘고, 임신과 낙태, 출산은 95%이상이 반대의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고등학생들은 손잡기, 포옹, 키스 정도의 성행동은 자신들 또래가 행해도 되는 성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애무나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해서

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성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규범은 이성과의 손잡기, 포옹, 키스까지는 적합하나 그 이상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적합지 않다고 보는 경향이다.

<표 IV-1> 청소년의 성행동규범

<N=153>, (%)

	절대반대	약간반대	중간	약간허용	적극허용	평균	표준 편차
손잡기	3(2.0)	1(.7)	14(9.2)	53(34.9)	81(53.3)	4.37	.835
포옹	3(2.0)	4(2.6)	33(21.7)	71(46.7)	41(27.7)	3.94	.878
키스	8(5.3)	20(13.2)	51(33.6)	53(34.9)	20(13.2)	3.37	1.041
애무	78(51.7)	32(21.2)	33(21.9)	7(4.6)	1(.7)	1.81	.976
성관계	107(70.9)	29(19.2)	10(6.6)	3(2.0)	2(1.3)	1.44	.813
임신	144(95.4)	7(4.6)	0(.0)	0(.0)	0(.0)	1.05	.211
낙태	146(96.7)	4(2.6)	0(.0)	0(.0)	1(.7)	1.05	.361
출산	142(94.0)	6(4.0)	0(.0)	3(2.0)	0(.0)	1.10	.458

<표 IV-2> 청소년의 성지식

<N=153>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지식	4.00	16.00	9.92	2.53

청소년의 성지식은 19점 만점에 4점에서 16점까지의 분포를 보이며 평균 정답율은 62%(평균 점수는 9.92점)로 대략 10개 정도의 정답을 맞춘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성지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표 IV-2).

<표 IV-3> 청소년의 성태도

<N=153>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청소년	보수적 성태도	1.67	5.00	3.74	.78
	개방적 성태도	2.00	5.00	3.85	.60

청소년들의 보수적 성태도는 5점 만점에 3.74, 개방적 성태도는 3.85로 중간 이상의 수준으로 성에 대한 보수적 성향과 개방적 성향을 모두 가지는 이중적 성향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표 IV-3).

다음으로는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경험수준이다. 표 IV-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인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경험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가벼운 수준의 성행동인 ‘손잡기’만이 중간 이상의 수준을 보였고 포옹부터 그 이상의 성행동은 중간 이하의 수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빈도분석 결과를 보면, 손잡기는 경험이 없는 학생이 43.3%, 포옹은 64.3%, 키스는 77.9%이나, 애무나 성관계는 90%이상의 학생들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으며 임신, 낙태, 출산은 100%의 학생들이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표 IV-4> 청소년의 성행동경험수준

<N=153>, (%)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있다	자주 그랬다	평균	표준 편차
손잡기	61(43.3)	60(42.6)	20(14.2)	1.71	.702
포옹	90(64.3)	40(28.6)	10(7.1)	1.43	.625
키스	109(77.9)	25(17.9)	6(4.3)	1.26	.531
애무	129(92.1)	9(6.4)	2(1.4)	1.09	.337
성관계	135(96.4)	4(2.9)	1(.7)	1.04	.236
임신	140(100.0)	0(.0)	0(.0)	1.00	.000
낙태	140(100.0)	0(.0)	0(.0)	1.00	.000
출산	140(100.0)	0(.0)	0(.0)	1.00	.000

이는 선행연구들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임신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김상원, 이양재, 박순정, 김수련, 송은일(1997)은 여고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전체의 0.4%가 임신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고, 김태근(1998)의 연구에서는 7.4%라고 밝혀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또한 성관계 역시 본 연구의 결과는 4.6%의 학생들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이러한 결과는 전국 고등학생 2,048명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해경(2000)의 연구 10.8%보다는 낮은 수치이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차이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청소년기에 적절하다고 생각

하는 성행동규범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IV-5에서 표 IV-9에 제시하였다.

청소년의 이성과의 손잡는 행동규범에 대해서 성별과 학교성적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과의 손잡는 행동에 대해 허용적이며, 학교 성적이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학생들이 ‘상’이나 ‘하’라고 응답한 학생에 비해 이성과의 손잡는 행동을 보다 허용적으로 반응하였다(표 IV-5).

이성과의 포옹은 성별과 가정경제수준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가정경제수준을 중산층 이상이라고 지각하는 고등학생이 경제수준이 하라고 지각하는 고등학생에 비해 보다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6).

이성과의 키스에 대한 허용수준은 청소년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8-19세의 고등학생이 17세나 15-16세 고등학생에 비해 키스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았다(표 IV-7).

이성과의 애무 허용수준은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교성적, 형제순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8-19세의 고등학생이 17세나 15-16세 고등학생에 비해 애무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았고, 학교 성적이 하인 고등학생이 애무에 대한 허용수준이 가장 높았다. 또한 형제순위 셋째 이하의 고등학생이 첫째나 둘째에 비해 애무에 대한 허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8).

<표 IV-5> 청소년의 손잡기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5	4.52	.704	2.237*	
	여	77	4.22	.927		
연 령	15-16	57	4.18	1.002	2.436	
	17	41	4.51	.597		
	18-19	53	4.45	.774		
	전 체	151	4.36	.837		
종 교	기독·천주	53	4.34	.960	.199	
	불교	26	4.46	.905		
	무교	73	4.36	.714		
	전 체	152	4.37	.835		
학 교 성 적	상	31	4.10	1.136	3.483*	B A AB
	중	94	4.50	.635		
	하	26	4.19	.981		
	전 체	151	4.36	.837		
형 제 순 위	첫째	81	4.28	.884	.877	
	둘째	51	4.45	.808		
	셋째이하	18	4.50	.707		
	전 체	150	4.37	.839		
경 제	하	37	4.22	.886	.862	
	중	96	4.41	.802		
	상	19	4.47	.905		
	전 체	152	4.37	.835		

* p<.05

<표 IV-6> 청소년의 포옹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5	4.13	.794	2.724**	
	여	77	3.75	.920		
연 령	15-16	57	3.74	1.009	2.503	
	17	41	4.05	.669		
	18-19	53	4.08	.851		
	전 체	151	3.94	.881		
종 교	기 독 • 천 주	53	3.92	.937	.109	
	불 교	26	3.88	.909		
	무 교	73	3.97	.833		
	전 체	152	3.94	.878		
학 교 성 적	상	31	3.77	1.146	1.572	
	중	94	4.03	.710		
	하	26	3.77	1.032		
	전 체	151	3.93	.877		
형 제 순 위	첫 째	81	3.80	.872	2.592	
	둘 째	51	4.08	.868		
	셋 째 이하	18	4.22	.878		
	전 체	150	3.95	.881		
경 제	하	37	3.57	.867	4.689*	B
	중	96	4.07	.837		A
	상	19	4.00	.943		A
	전 체	152	3.94	.878		

* p<.05 ** p<.01

<표 IV-7> 청소년의 키스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5	3.63	.912	3.020**	
	여	77	3.13	1.104		
연 령	15-16	57	3.12	1.151	3.509*	B
	17	41	3.37	.888		AB
	18-19	53	3.64	.982		A
	전 체	151	3.37	1.043		
종 교	기 독 • 천 주	53	3.21	1.133	1.144	
	불 교	26	3.54	.905		
	무 교	73	3.44	1.014		
	전 체	152	3.38	1.041		
학 교 성 적	상	31	3.13	1.335	1.112	
	중	94	3.44	.922		
	하	26	3.46	1.067		
	전 체	151	3.38	1.044		
형 제 순 위	첫 째	81	3.23	1.064	1.959	
	둘 째	51	3.47	.987		
	셋 째 이하	18	3.72	1.074		
	전 체	150	3.37	1.046		
경 제	하	37	3.22	.976	.846	
	중	96	3.46	1.004		
	상	19	3.26	1.327		
	전 체	152	3.38	1.041		

* p<.05 ** p<.01

<표 IV-8> 청소년의 애무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4	2.20	1.047	5.190***	
	여	77	1.44	.734		
연 령	15-16	57	1.44	.756	15.555***	B
	17	41	1.66	.762		B
	18-19	52	2.37	1.103		A
	전 체	150	1.82	.977		
종 교	기 독 • 천 주	53	1.85	1.008	.174	
	불 교	25	1.88	1.013		
	무 교	73	1.77	.950		
	전 체	151	1.81	.976		
학 교 성 적	상	31	1.48	.890	3.871*	B
	중	93	1.83	.940		AB
	하	26	2.19	1.096		A
	전 체	150	1.82	.977		
형 제 순 위	첫 째	80	1.65	.915	4.656*	B
	둘 째	51	1.90	.985		B
	셋 째 이하	18	2.39	1.037		A
	전 체	149	1.83	.978		
경 제	하	36	1.75	.967	.978	
	중	96	1.78	.943		
	상	19	2.11	1.150		
	전 체	151	1.81	.976		

* p<.05 *** p<.001

<표 IV-9> 청소년의 성관계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남	74	1.78	1.010	5.640***	
	여	77	1.10	.307		
연령	15-16	57	1.09	.285	19.899***	B
	17	41	1.29	.512		B
	18-19	52	1.94	1.110		A
	전체	150	1.44	.815		
종교	기독교·천주	53	1.32	.754	.926	
	불교	25	1.56	1.044		
	무교	73	1.48	.766		
	전체	151	1.44	.813		
학교 성적	상	31	1.19	.749	2.735	
	중	93	1.45	.700		
	하	26	1.69	1.158		
	전체	150	1.44	.815		
형제 순위	첫째	80	1.31	.667	6.542**	B
	둘째	51	1.43	.781		B
	셋째이하	18	2.06	1.211		A
	전체	149	1.44	.817		
경제	하	36	1.50	.775	.548	
	중	96	1.45	.857		
	상	19	1.26	.653		
	전체	151	1.44	.813		

** p<.01, *** p<.001

이성과의 성관계 허용수준은 청소년의 성별, 연령, 학교성적, 형제순

위에 따라 달리 나타났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8-19세의 고등학생이 17세나 15-16세 고등학생에 비해 성관계 허용수준이 높았고, 형제순위 셋째 이하의 고등학생이 첫째나 둘째에 비해 성관계 허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9).

<표 IV-10> 청소년의 출산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남	74	1.18	.627	2.027*	
	여	77	1.03	.160		
연령	15-16	57	1.00	.000	2.250	
	17	41	1.15	.527		
	18-19	52	1.17	.617		
	전체	150	1.10	.460		
종교	기독교·천주	53	1.06	.233	1.468	
	불교	25	1.24	.831		
	무교	73	1.08	.400		
	전체	151	1.10	.458		
학교 성적	상	31	1.00	.000	.932	
	중	93	1.13	.494		
	하	26	1.12	.588		
	전체	150	1.10	.460		
형제 순위	첫째	80	1.09	.482	2.844	
	둘째	51	1.04	.196		
	셋째이하	18	1.33	.767		
	전체	149	1.10	.461		
경제	하	36	1.06	.232	.907	
	중	96	1.14	.555		
	상	19	1.00	.000		
	전체	151	1.10	.458		

* $p<.05$

이성과의 성관계로 인한 출산에 대한 허용성 역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0).

한편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임신과 낙태에 대한 허용성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지식과 성태도에 관한 분석이다.

표 IV-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들의 성지식은 성별과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성지식이 높고, 15-16세 보다 나이가 많은 고등학생들이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지식이 많고, 학년별 비교에서 학년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많다고 한 김현정·이귀옥(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고등학생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는 표 IV-12과 IV-13과 같다. 먼저 보수적 성태도는 성별, 연령, 학교성적, 형제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고, 개방적 성태도는 성별, 연령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보수적 성태도 경향이 높고,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개방적 성태도 경향이 높다. 고등학생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수적 성태도가 높은 반면, 연령이 많을수록 개방적 성태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성적이 좋을수록 보수적 성태도를 보이며, 첫째와 둘째가 셋째 이하에 비해 보수적 성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태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연령(혹은 학년급)에 따른 차이는 선행연구에서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된 대다수의 연구(김명희, 1983 ; 김병준, 1993 ; 김영화, 1991 ; 이상문, 1995 ; 이창식·김윤정, 2003 ; 조아미, 200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 혹은 쾌락적 태도를 보였으며, 연령이 많을수록 보다 더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표 IV-11> 청소년의 성지식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5	10.53	2.456	3.029**	
	여	77	9.32	2.462		
연 령	15-16	57	9.21	2.582	3.996*	B
	17	41	10.34	2.265		A
	18-19	53	10.42	2.507		A
	전 체	151	9.94	2.522		
종 교	기독·천주	53	9.60	2.684	.820	
	불교	26	10.35	2.415		
	무교	73	10.00	2.449		
	전 체	152	9.92	2.525		
학 교 성 적	상	31	10.74	2.308	2.000	
	중	94	9.74	2.527		
	하	26	9.69	2.649		
	전 체	151	9.94	2.522		
형 제 순 위	첫째	81	10.01	2.462	.239	
	둘째	51	9.78	2.343		
	셋째이하	18	10.22	3.209		
	전 체	150	9.96	2.508		
경 제	하	38	10.34	2.374	.707	
	중	96	9.79	2.599		
	상	18	9.72	2.468		
	전 체	152	9.92	2.525		

* p<.05 ** p<.01

<표 IV-12> 청소년의 보수적 성태도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6	3.35	.760	-6.921***	
	여	77	4.12	.598		
연 령	15-16	57	4.12	.560	20.528***	A
	17	41	3.80	.749		B
	18-19	54	3.28	.768		C
	전 체	152	3.74	.783		
종 교	기독·천주	53	3.90	.779	1.801	
	불교	26	3.72	.674		
	무교	74	3.63	.808		
	전 체	153	3.7402	.781		
학 교 성 적	상	32	4.08	.703	4.169*	A
	중	94	3.65	.767		B
	하	26	3.63	.826		B
	전 체	152	3.73	.780		
형 제 순 위	첫째	82	3.83	.731	3.226*	A
	둘째	51	3.73	.841		A
	셋째이하	18	3.31	.747		B
	전 체	151	3.73	.783		
경 제	하	38	3.49	.760	2.728	
	중	96	3.82	.770		
	상	19	3.85	.810		
	전 체	153	3.74	.781		

* p<.05 *** p<.001

<표 IV-13> 청소년의 개방적 성태도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6	4.0987	.5100	5.519***	
	여	77	3.6082	.5860		
연 령	15-16	57	3.6316	.6015	9.131***	B
	17	41	3.8415	.5760		B
	18-19	54	4.0957	.5365		A
	전 체	152	3.8531	.6022		
종 교	기독·천주	53	3.7704	.5957	.757	
	불교	26	3.8782	.5765		
	무교	74	3.9009	.6137		
	전 체	153	3.8519	.6004		
학 교 성 적	상	32	3.7135	.7048	1.055	
	중	94	3.8918	.5512		
	하	26	3.8590	.6371		
	전 체	152	3.8487	.6011		
형 제 순 위	첫째	82	3.7927	.6211	1.419	
	둘째	51	3.9477	.5461		
	셋째이하	18	3.9722	.5520		
	전 체	151	3.8664	.5906		
경 제	하	38	3.9298	.5690	.423	
	중	96	3.8264	.5898		
	상	19	3.8246	.7253		
	전 체	153	3.8519	.6004		

*** p<.001

다음으로는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신이 경험한 성행동수준을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다(표 IV-14)에서 표 IV-18).

먼저 표 IV-14는 청소년들의 이성과의 손잡기 경험에 관한 것인데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과의 손잡기 경험이 많고, 18-19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이성과의 손잡은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들의 이성과의 포옹경험은 성별과 연령, 형제순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이성과의 포옹경험이 많았고, 18-19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이성과의 포옹경험이 많았다. 또한 맏이가 다른 형제에 비해 이성과의 포옹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5).

청소년의 이성과의 키스경험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손잡기와 포옹경험과 마찬가지로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그리고 18-19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이성과의 키스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6).

청소년의 이성과의 애무경험은 성별과 연령, 종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8-19세의 고등학생이 연령이 낮은 고등학생에 비해 이성과의 애무경험이 많았고 기독교와 천주교를 믿는 고등학생이 종교가 없는 고등학생에 비해 이성과의 애무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7).

청소년의 성관계경험은 성별, 연령과 형제순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18-19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성관계경험이 많으며, 셋째이하의 고등학생이 첫째나 둘째에 비해 성관계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18).

한편 임신과 낙태, 출산의 경험은 청소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14> 청소년의 손잡기 경험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1	1.90	.759	3.393***	
	여	70	1.51	.583		
연 령	15-16	53	1.45	.607	10.307***	B
	17	38	1.66	.627		B
	18-19	49	2.04	.735		A
	전 체	140	1.71	.702		
종 교	기 독 • 천 주	49	1.73	.730	.107	
	불 교	23	1.74	.689		
	무 교	69	1.68	.696		
	전 체	141	1.71	.702		
학 교 성 격	상	32	1.53	.567	1.222	
	중	84	1.75	.692		
	하	24	1.75	.847		
	전 체	140	1.70	.696		
형 제 순 위	첫 째	75	1.71	.693	.273	
	둘 째	46	1.70	.726		
	셋 째 이하	18	1.83	.707		
	전 체	139	1.72	.702		
경 제	하	34	1.68	.768	.048	
	중	89	1.72	.674		
	상	18	1.72	.752		
	전 체	141	1.71	.702		

*** p<.001

<표 IV-15> 청소년의 포옹 경험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0	1.61	.687	3.671***	
	여	70	1.24	.494		
연 령	15-16	53	1.17	.470	12.764***	B
	17	38	1.39	.547		B
	18-19	48	1.75	.700		A
	전 체	139	1.43	.626		
종 교	기독·천주	48	1.46	.651	1.599	
	불교	23	1.61	.722		
	무교	69	1.35	.564		
	전 체	140	1.43	.625		
학 교 성 적	상	32	1.22	.420	2.245	
	중	83	1.47	.631		
	하	24	1.50	.722		
	전 체	139	1.42	.613		
형 제 순 위	첫째	74	1.34	.556	2.966*	A
	둘째	46	1.48	.658		AB
	셋째이하	18	1.72	.752		B
	전 체	138	1.43	.627		
경 제	하	34	1.29	.579	1.239	
	중	88	1.45	.642		
	상	18	1.56	.616		
	전 체	140	1.43	.625		

* p<.05, *** p<.001

<표 IV-16> 청소년의 키스 경험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0	1.41	.625	3.471***	
	여	70	1.11	.363		
연 령	15-16	53	1.09	.354	13.458***	B
	17	38	1.13	.343		B
	18-19	48	1.56	.681		A
	전 체	139	1.27	.533		
종 교	기독·천주	48	1.35	.565	1.466	
	불교	23	1.30	.635		
	무교	69	1.19	.463		
	전 체	140	1.26	.531		
학 교 성 적	상	32	1.09	.296	2.072	
	중	83	1.31	.583		
	하	24	1.29	.550		
	전 체	139	1.26	.529		
형 제 순 위	첫째	74	1.19	.428	2.093	
	둘째	46	1.33	.634		
	셋째이하	18	1.44	.616		
	전 체	138	1.27	.534		
경 제	하	34	1.26	.567	.594	
	중	88	1.24	.503		
	상	18	1.39	.608		
	전 체	140	1.26	.531		

*** p<.001

<표 IV-17> 청소년의 애무 경험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남	70	1.19	.460	3.380***	
	여	70	1.00	.000		
연령	15-16	53	1.00	.000	11.628***	B
	17	38	1.00	.000		B
	18-19	48	1.27	.536		A
	전체	139	1.09	.338		
종교	기독교·천주	48	1.19	.491	3.235*	A
	불교	23	1.09	.288		AB
	무교	69	1.03	.169		B
	전체	140	1.09	.337		
학교 성적	상	32	1.03	.177	1.108	
	중	83	1.10	.370		
	하	24	1.17	.381		
	전체	139	1.09	.338		
형제순위	첫째	74	1.07	.302	.677	
	둘째	46	1.11	.379		
	셋째이하	18	1.17	.383		
	전체	138	1.09	.339		
경제	하	34	1.09	.288	1.574	
	중	88	1.07	.295		
	상	18	1.22	.548		
	전체	140	1.09	.337		

* p<.05 *** p<.001

<표 IV-18>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남	70	1.09	.329	2.177*	
	여	70	1.00	.000		
연령	15-16	53	1.00	.000	4.605*	B
	17	38	1.00	.000		B
	18-19	48	1.13	.393		A
	전체	139	1.04	.237		
종교	기독교·천주	48	1.06	.320	.283	
	불교	23	1.04	.209		
	무교	69	1.03	.169		
	전체	140	1.04	.236		
학교 성적	상	32	1.00	.000	2.030	
	중	83	1.04	.244		
	하	24	1.13	.338		
	전체	139	1.04	.237		
형제 순위	첫째	74	1.03	.232	2.863*	B
	둘째	46	1.02	.147		B
	셋째이하	18	1.17	.383		A
	전체	138	1.04	.238		
경제	하	34	1.06	.239	1.153	
	중	88	1.02	.150		
	상	18	1.11	.471		
	전체	140	1.04	.236		

* p<.05

2. 부모 세대의 성

1) 부모 세대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의 일반적 경향

부모세대의 청소년기의 적절한 성행동에 대한 규범과 성지식, 성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성행동규범은 딸일 경우와 아들일 경우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청소년 자녀 중에 딸이나 아들이 없더라도 응답을 부탁하였다(표 IV-19, 표 IV-20).

<표 IV-19> 부모 세대의 성행동 허용수준 : 자녀가 딸일 경우

<N=153>, (%)

	절대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허용	적극 허용	평균	표준 편차
손잡기	15(12.9)	16(13.8)	18(15.5)	56(48.3)	11(9.5)	3.24	1.213
포옹	39(33.6)	21(18.1)	21(18.1)	30(25.9)	5(4.3)	2.47	1.302
키스	65(56.0)	27(23.3)	14(12.1)	10(8.6)	0(.0)	1.73	.981
애무	97(83.6)	12(10.3)	4(3.4)	3(2.6)	0(.0)	1.25	.644
성관계	112(96.6)	2(1.7)	2(1.7)	0(.0)	0(.0)	1.05	.290
임신	114(98.3)	1(.9)	1(.9)	0(.0)	0(.0)	1.06	.423
낙태	113(97.4)	1(.9)	1(.9)	0(.0)	0(.0)	1.09	.503
출산	115(99.1)	0(.0)	1(.9)	0(.0)	0(.0)	1.05	.414

표 IV-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 IV-20에서는 아들일 경우를 제시하였다. 청소년 자녀가 딸일 경우 성행동규범은 아들일 경우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9를 보면, 손잡기 정도는 허용을 하나 포옹부터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부모의 비율이 높고, 특히 애무,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자녀의 심각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대략 84%선에서 99%까지 대다수의 청소년 부모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0> 부모 세대의 성행동 허용수준: 자녀가 아들일 경우

<N=153>, (%)

	절대반대	약간반대	중간	약간허용	적극허용	평균	표준 편차
손잡기	8(6.3)	13(10.2)	25(19.5)	64(50.0)	18(14.1)	3.55	1.056
포옹	31(24.2)	25(19.5)	20(15.6)	46(35.9)	6(4.7)	2.77	1.293
키스	57(44.5)	22(17.2)	32(25.0)	13(10.2)	4(3.1)	2.10	1.176
애무	101(78.9)	18(14.1)	7(5.5)	2(1.6)	0(.0)	1.30	.644
성관계	120(78.4)	6(4.7)	2(1.6)	0(.0)	0(.0)	1.08	.323
임신	126(98.4)	1(.8)	1(.8)	0(.0)	0(.0)	1.02	.197
낙태	124(96.9)	2(1.6)	1(.8)	0(.0)	0(.0)	1.05	.339
출산	126(98.4)	1(.8)	1(.8)	0(.0)	0(.0)	1.02	.197

다음으로 아들의 경우 손잡기는 허용을 하는 편이고, 포옹은 허용과 반대가 절반정도씩이나 키스 이상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애무,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의 경우는 대략 79%선에서 98%까지 대다수의 청소년 부모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0).

<표 IV-21> 부모 세대의 성지식

<N=153>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지식	2.00	16.00	10.76	2.68

부모의 성지식은 19점 만점에 평균 10.76점으로 중간 이상의 성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결과와 비교했을 때 부모의 성지식이 약간 높을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

<표 IV-22> 부모 세대의 성태도

<N=153>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부모	보수적 성태도	1.67	5.00	4.14	.60
	개방적 성태도	1.00	5.00	3.64	.57

고등학교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성태도는 보수적 성태도가 4.14로 상당히 높았고 개방적 성태도는 3.64점으로 중간 정도의 태도를 나타내 보였다. 즉 개방적 성태도에 비해 보수적 성태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세대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의 차이

자녀들의 성행동 허용 수준이 부모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를 딸의 경우와 아들의 경우로 구분하여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하였다.

(1) 딸의 경우 성행동규범

부모의 딸에 대한 이성과의 손잡기 허용 수준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3).

부모의 딸에 대한 이성과의 포옹 허용 수준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의 학력이 고졸 이상일 경우 딸의 포옹 허용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반대로 부모의 학력이 중졸이하일 때 가장 낮아 차이를 보였다(표 IV-24).

부모의 딸에 대한 이성과의 키스 허용 수준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 학력이 고졸이상인 부모가 키스 허용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이상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 학력이 중졸이하인 부모는 가장 낮은 키스 허용 수준을 보였다(표 IV-25).

부모의 딸에 대한 이성과의 애무 허용 수준은 표 IV-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아버지일 경우가 딸의 이성과의 애무 허용성이 어머니보다 높았다.

딸의 이성과의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심각한 성행동에 대한 부모의 허용 수준은 표 IV-27부터 IV-30에 제시하였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이들 허용 수준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청소년 특히, 딸의 이성과의 성관계에서부터 임신, 낙태, 출산 등의 심각한 성행위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관계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딸의 손잡기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2	3.31	1.197	.931	
	어머니	64	3.25	1.222		
연령	45세 이하	73	3.27	1.272	-.022	
	46세 이상	43	3.28	1.098		
학력	중졸이하	29	2.83	1.227	2.863	
	고졸	68	3.46	1.190		
	대졸이상	19	3.32	1.108		
	전체	116	3.28	1.206		
종교	기독교·천주	32	3.47	1.107	.992	
	불교	40	3.08	1.163		
	무교	44	3.32	1.308		
	전체	116	3.28	1.206		
거주지	도시	56	3.34	1.210	.546	
	농촌	60	3.22	1.209		
소득	200만 미만	49	3.35	1.182	1.502	
	300만 미만	31	3.48	1.288		
	300만 이상	36	3.00	1.146		
	전체	116	3.28	1.206		
직업	판매서비스	20	3.25	1.293	.038	
	자영업	34	3.32	1.224		
	전업주부	27	3.22	1.155		
	기타	35	3.29	1.226		
	전체	116	3.28	1.206		

<표 IV-24> 딸의 포옹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2	2.48	1.321	.890	
	어머니	64	2.50	1.309		
연 령	45세 이하	73	2.60	1.299	1.196	
	46세 이상	43	2.30	1.319		
학 력	중졸이하	29	1.93	1.100	3.728*	B
	고졸	68	2.69	1.330		A
	대졸이상	19	2.63	1.342		A
	전 체	116	2.49	1.309		
종 교	기독 • 천주	32	2.75	1.218	1.713	
	불교	40	2.20	1.265		
	무교	44	2.57	1.388		
	전 체	116	2.49	1.309		
거주지	도시	56	2.64	1.299	1.207	
	농촌	60	2.35	1.313		
소득	200만 미만	49	2.63	1.236	1.935	
	300만 미만	31	2.68	1.400		
	300만 이상	36	2.14	1.291		
	전 체	116	2.49	1.309		
직업	판매서비스	20	2.65	1.268	.304	
	자영업	34	2.32	1.430		
	전업주부	27	2.56	1.219		
	기타	35	2.51	1.314		
	전 체	116	2.49	1.309		

* $p < .05$

<표 IV-25> 딸의 키스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2	1.83	1.043	.931	
	어머니	64	1.66	.930		
연령	45세 이하	73	1.77	1.021	.490	
	46세 이상	43	1.67	.919		
학력	중졸이하	29	1.38	.677	3.595*	B
	고졸	68	1.93	1.083		A
	대졸이상	19	1.58	.838		AB
	전체	116	1.73	.981		
종교	기독교·천주	32	1.75	1.016	.007	
	불교	40	1.73	.905		
	무교	44	1.73	1.042		
	전체	116	1.73	.981		
거주지	도시	56	1.80	.961	.750	
	농촌	60	1.67	1.003		
소득	200만 미만	49	1.78	.963	1.307	
	300만 미만	31	1.90	1.136		
	300만 이상	36	1.53	.845		
	전체	116	1.73	.981		
직업	판매서비스	20	1.70	1.031	.095	
	자영업	34	1.74	1.053		
	전업주부	27	1.81	1.001		
	기타	35	1.69	.900		
	전체	116	1.73	.981		

* $p < .05$

<표 IV-26> 딸의 애무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2	1.40	.823	2.364*	
	어머니	64	1.13	.418		
연 령	45세 이하	73	1.26	.688	.223	
	46세 이상	43	1.23	.571		
학 력	중졸이하	29	1.10	.409	1.009	
	고졸	68	1.29	.692		
	대졸이상	19	1.32	.749		
	전 체	116	1.25	.644		
종 교	기독 • 천주	32	1.22	.553	.064	
	불교	40	1.25	.630		
	무교	44	1.27	.727		
	전 체	116	1.25	.644		
거주지	도시	56	1.23	.504	-.287	
	농촌	60	1.27	.756		
소 득	200만 미만	49	1.18	.441	.995	
	300만 미만	31	1.39	.882		
	300만 이상	36	1.22	.637		
	전 체	116	1.25	.644		
직 업	판매서비스	20	1.35	.813	.641	
	자영업	34	1.32	.806		
	전업주부	27	1.22	.577		
	기타	35	1.14	.355		
	전 체	116	1.25	.644		

* $p < .05$

<표 IV-27> 딸의 성관계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2	1.10	.409	1.494	
	어머니	64	1.02	.125		
연령	45세 이하	73	1.07	.347	.809	
	46세 이상	43	1.02	.152		
학력	중졸이하	29	1.00	.000	.648	
	고졸	68	1.07	.359		
	대졸이상	19	1.05	.229		
	전체	116	1.05	.290		
종교	기독교·천주	32	1.09	.390	1.042	
	불교	40	1.00	.000		
	무교	44	1.07	.334		
	전체	116	1.05	.290		
거주지	도시	56	1.04	.267	-.572	
	농촌	60	1.07	.312		
소득	200만 미만	49	1.04	.286	.067	
	300만 미만	31	1.06	.359		
	300만 이상	36	1.06	.232		
	전체	116	1.05	.290		
직업	판매서비스	20	1.10	.447	.752	
	자영업	34	1.09	.379		
	전업주부	27	1.04	.192		
	기타	35	1.00	.000		
	전체	116	1.05	.290		

<표 IV-28> 딸의 임신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2	1.04	.277	.590	
	어머니	64	1.02	.125		
연 령	45세 이하	73	1.04	.260	1.034	
	46세 이상	43	1.00	.000		
학 력	중졸이하	29	1.00	.000	.636	
	고졸	68	1.04	.270		
	대졸이상	19	1.00	.000		
	전 체	116	1.03	.207		
종 교	기독·천주	32	1.03	.177	.516	
	불교	40	1.00	.000		
	무교	44	1.05	.302		
	전 체	116	1.03	.207		
거주지	도시	56	1.00	.000	-1.303	
	농촌	60	1.05	.287		
소득	200만 미만	49	1.04	.286	.368	
	300만 미만	31	1.00	.000		
	300만 이상	36	1.03	.167		
	전 체	116	1.03	.207		
직업	판매서비스	20	1.00	.000	.594	
	자영업	34	1.06	.343		
	전업주부	27	1.04	.192		
	기타	35	1.00	.000		
	전 체	116	1.03	.207		

<표 IV-29> 딸의 낙태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2	1.04	.277	-.372	
	어머니	64	1.06	.393		
연 령	45세 이하	73	1.08	.433	1.242	
	46세 이상	43	1.00	.000		
학 력	중졸이하	29	1.00	.000	1.247	
	고졸	68	1.04	.270		
	대졸이상	19	1.16	.688		
	전 체	116	1.05	.345		
종 교	기독 • 천주	32	1.13	.554	1.182	
	불교	40	1.00	.000		
	무교	44	1.05	.302		
	전 체	116	1.05	.345		
거주지	도시	56	1.05	.401	.055	
	농촌	60	1.05	.287		
소득	200만 미만	49	1.04	.286	.371	
	300만 미만	31	1.10	.539		
	300만 이상	36	1.03	.167		
	전 체	116	1.05	.345		
직업	판매서비스	20	1.00	.000	.279	
	자영업	34	1.06	.343		
	전업주부	27	1.04	.192		
	기타	35	1.09	.507		
	전 체	116	1.05	.345		

<표 IV-30> 딸의 출산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2	1.04	.277	1.111	
	어머니	64	1.00	.000		
연 령	45세 이하	73	1.03	.234	.766	
	46세 이상	43	1.00	.000		
학 력	중졸이하	29	1.00	.000	.349	
	고졸	68	1.03	.243		
	대졸이상	19	1.00	.000		
	전 체	116	1.02	.186		
종 교	기독 • 천주	32	1.00	.000	.816	
	불교	40	1.00	.000		
	무교	44	1.05	.302		
	전 체	116	1.02	.186		
거주지	도시	56	1.00	.000	-.966	
	농촌	70	1.03	.258		
소 득	200만 미만	49	1.04	.286	.680	
	300만 미만	31	1.00	.000		
	300만 이상	36	1.00	.000		
	전 체	116	1.02	.186		
직 업	판매서비스	20	1.00	.000	.800	
	자영업	34	1.06	.343		
	전업주부	27	1.00	.000		
	기타	35	1.00	.000		
	전 체	116	1.02	.186		

(2) 아들의 경우 성행동규범

<표 IV-31> 아들의 손잡기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9	3.59	1.052	.380	
	어머니	69	3.52	1.066		
연령	45세 이하	72	3.57	1.085	.179	
	46세 이상	56	3.54	1.026		
학력	중졸이하	34	3.26	1.189	1.768	
	고졸	74	3.66	1.024		
	대졸이상	20	3.65	.875		
	전체	128	3.55	1.056		
종교	기독교 • 천주	35	3.57	.917	.606	
	불교	43	3.42	1.180		
	무교	50	3.66	1.042		
	전체	128	3.55	1.056		
거주지	도시	58	3.62	1.023	.642	
	농촌	70	3.50	1.087		
소득	200만 미만	50	3.52	1.074	.395	
	300만 미만	38	3.47	1.156		
	300만 이상	40	3.68	.944		
	전체	128	3.55	1.056		
직업	판매서비스	22	3.32	1.171	.483	
	자영업	33	3.64	1.141		
	전업주부	30	3.63	.890		
	기타	43	3.56	1.053		
	전체	128	3.55	1.056		

부모의 아들에 대한 이성과의 손잡기 허용 수준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

<표 IV-32> 아들의 포옹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9	2.86	1.279	.735	
	어머니	69	2.70	1.310		
연령	45세 이하	72	2.78	1.270	.043	
	46세 이상	56	2.77	1.355		
학력	중졸이하	34	2.32	1.199	3.169*	B A AB
	고졸	74	2.99	1.329		
	대졸이상	20	2.75	1.164		
	전체	128	2.77	1.293		
종교	기독교·천주	35	2.94	1.056	.804	
	불교	43	2.58	1.349		
	무교	50	2.82	1.395		
	전체	128	2.77	1.293		
거주지	도시	58	2.97	1.270	1.538	
	농촌	70	2.61	1.300		
소득	200만 미만	50	2.90	1.249	.391	
	300만 미만	38	2.68	1.378		
	300만 이상	40	2.70	1.285		
	전체	128	2.77	1.293		
직업	판매서비스	22	2.77	1.152	.132	
	자영업	33	2.76	1.437		
	전업주부	30	2.67	1.295		
	기타	43	2.86	1.283		
	전체	128	2.77	1.293		

* $p<.05$

아들에 대한 이성과의 포옹 허용 수준은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 중졸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의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아들의 포옹 허용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IV-32).

<표 IV-33> 아들의 키스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9	2.24	1.179	1.209	
	어머니	69	1.99	1.169		
연령	45세 이하	72	2.00	1.236	-1.109	
	46세 이상	56	2.23	1.126		
학력	중졸이하	34	1.71	.970	3.879*	B A AB
	고졸	74	2.34	1.264		
	대졸이상	20	1.90	.968		
	전체	128	2.10	1.176		
종교	기독교·천주	35	1.91	1.040	1.067	
	불교	43	2.05	1.154		
	무교	50	2.28	1.278		
	전체	128	2.10	1.176		
거주지	도시	58	2.19	1.206	.770	
	농촌	70	2.03	1.154		
소득	200만 미만	50	2.12	1.272	.016	
	300만 미만	38	2.11	1.269		
	300만 이상	40	2.08	.971		
	전체	128	2.10	1.176		
직업	판매서비스	22	1.73	1.077	.896	
	자영업	33	2.18	1.334		
	전업주부	30	2.17	1.147		
	기타	43	2.19	1.118		
	전체	128	2.10	1.176		

* $p < .05$

부모의 아들에 대한 이성과의 키스 허용 수준도 표 IV-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의 학력이 고졸인 경우 허용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졸이상, 중졸이하 순으로 나타났다(표 IV-33).

<표 IV-34> 아들의 애무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9	1.41	.746	1.800	
	어머니	69	1.20	.531		
연령	45세 이하	72	1.26	.650	-.655	
	46세 이상	56	1.34	.640		
학력	중졸이하	34	1.21	.538	.485	
	고졸	74	1.34	.668		
	대졸이상	20	1.30	.733		
	전체	128	1.30	.644		
종교	기독교·천주	35	1.23	.547	.307	
	불교	43	1.30	.674		
	무교	50	1.34	.688		
	전체	128	1.30	.644		
거주지	도시	58	1.34	.608	.765	
	농촌	70	1.26	.674		
소득	200만 미만	50	1.22	.465	.625	
	300만 미만	38	1.37	.786		
	300만 이상	40	1.33	.694		
	전체	128	1.30	.644		
직업	판매서비스	22	1.36	.790	.252	
	자영업	33	1.33	.736		
	전업주부	30	1.30	.651		
	기타	43	1.23	.480		
	전체	128	1.30	.644		

부모의 아들에 대한 이성과의 애무 허용 수준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4).

부모의 아들에 대한 이성과의 성관계, 낙태, 임신, 출산 등의 심각한 성행동에 대한 허용 수준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5 ~ 표 IV-38).

<표 IV-35> 아들의 성관계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59	1.12	.419	1.318	
	어머니	69	1.04	.205		
연령	45세 이하	72	1.06	.285	-.897	
	46세 이상	56	1.11	.366		
학력	중졸이하	34	1.03	.171	.780	
	고졸	74	1.11	.391		
	대졸이상	20	1.05	.224		
	전체	128	1.08	.323		
종교	기독교·천주	35	1.09	.373	.328	
	불교	43	1.05	.213		
	무교	50	1.10	.364		
	전체	128	1.08	.323		
거주지	도시	58	1.10	.406	.807	
	농촌	70	1.06	.234		
소득	200만 미만	50	1.06	.240	.213	
	300만 미만	38	1.11	.453		
	300만 이상	40	1.08	.267		
	전체	128	1.08	.323		
직업	판매서비스	22	1.09	.426	.352	
	자영업	33	1.12	.415		
	전업주부	30	1.07	.254		
	기타	43	1.05	.213		
	전체	128	1.08	.323		

<표 IV-36> 아들의 이성애에 대한 임신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9	1.03	.260	.554	
	어머니	69	1.01	.120		
연 령	45세 이하	72	1.01	.188	-.620	
	46세 이상	56	1.04	.267		
학 력	중졸이하	34	1.00	.000	.657	
	고졸	74	1.04	.259		
	대졸이상	20	1.00	.000		
	전 체	128	1.02	.197		
종 교	기독·천주	35	1.03	.169	.489	
	불교	43	1.00	.000		
	무교	50	1.04	.283		
	전 체	128	1.02	.197		
거주지	도시	58	1.03	.263	.576	
	농촌	70	1.01	.120		
소득	200만 미만	50	1.00	.000	.769	
	300만 미만	38	1.05	.324		
	300만 이상	40	1.02	.158		
	전 체	128	1.02	.197		
직업	판매서비스	22	1.00	.000	.719	
	자영업	33	1.06	.348		
	전업주부	30	1.03	.183		
	기타	43	1.00	.000		
	전 체	128	1.02	.197		

<표 IV-37> 아들의 이성애에 대한 낙태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9	1.03	.260	-.640	
	어머니	69	1.07	.396		
연 령	45세 이하	72	1.06	.371	.033	
	46세 이상	56	1.05	.297		
학 력	중졸이하	34	1.03	.171	.947	
	고졸	74	1.04	.259		
	대졸이상	20	1.15	.671		
	전 체	128	1.05	.339		
종 교	기독·천주	35	1.11	.530	.769	
	불교	43	1.02	.152		
	무교	50	1.04	.283		
	전 체	128	1.05	.339		
거주지	도시	58	1.09	.470	.956	
	농촌	70	1.03	.168		
소득	200만 미만	50	1.02	.141	1.399	
	300만 미만	38	1.13	.578		
	300만 이상	40	1.02	.158		
	전 체	128	1.05	.339		
직업	판매서비스	22	1.00	.000	.230	
	자영업	33	1.06	.348		
	전업주부	30	1.07	.254		
	기타	43	1.07	.457		
	전 체	128	1.05	.339		

<표 IV-38> 아들의 출산 허용 수준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59	1.03	.260	.554	
	어머니	69	1.01	.120		
연 령	45세 이하	72	1.00	.000	-1.534	
	46세 이상	56	1.05	.297		
학 력	중졸이하	34	1.03	.171	.167	
	고졸	74	1.03	.232		
	대졸이상	20	1.00	.000		
	전 체	128	1.02	.197		
종 교	기 독 • 천 주	35	1.00	.000	.420	
	불 교	43	1.02	.152		
	무 교	50	1.04	.283		
	전 체	128	1.02	.197		
거 주 지	도 시	58	1.03	.263	.576	
	농 촌	70	1.01	.120		
소 득	200만 미만	50	1.02	.141	.705	
	300만 미만	38	1.05	.324		
	300만 이상	40	1.00	.000		
	전 체	128	1.02	.197		
직 업	판매서비스	22	1.00	.000	.719	
	자영업	33	1.06	.348		
	전업주부	30	1.03	.183		
	기타	43	1.00	.000		
	전 체	128	1.02	.197		

다음으로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세대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고 결과는 표 IV-39, 40, 41에 제시하였다.

먼저, 부모의 성지식은 표 IV-39에서와 같이 소득과 직업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월 평균 300만원 이상인 부모의 성지식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소득이 200만-300만원, 200만원 미만 순으로 높게 나타나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직업에 따라서는 자영업인 부모가 성지식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전문직, 사무관리직 등의 기타 직업인 부모가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주부와 판매업, 서비스업 등의 직업을 가진 부모가 성지식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표 IV-39).

또한,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는 표 IV-40와 IV-41에 제시하였다.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는 종교에 따라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변인들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었다. 즉, 부모가 기독교나 천주교인 경우 보수적 성태도가 가장 높았고, 불교, 무교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부모의 개방적 성태도는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39> 부모의 성지식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68	10.7059	2.8862	-.212	
	어머니	80	10.8000	2.5027		
연 령	45세 이하	86	10.756	2.7221	-.005	
	46세 이상	62	10.758	2.6345		
학 력	중졸이하	39	10.5385	2.2809	1.011	
	고졸	85	10.6588	2.8139		
	대졸이상	24	11.4583	2.7659		
	전 체	148	10.7568	2.6767		
종 교	기 독 • 천 주	39	10.6667	3.0291	1.016	
	불 교	50	11.1800	2.2010		
	무 교	59	10.4576	2.7936		
	전 체	148	10.7568	2.6767		
거 주 지	도 시	68	10.8824	2.4283	.525	
	농 촌	80	10.6500	2.8821		
소 득	200만 미만	57	9.6842	2.8104	8.578***	B
	300만 미만	43	11.1860	2.4325		A
	300만 이상	48	11.6458	2.3108		A
	전 체	148	10.7568	2.6767		
직 업	판매서비스	23	10.0000	3.6056	2.942*	B
	자영업	39	11.7692	2.3671		A
	전업주부	37	10.3243	2.3811		B
	기타	49	10.6327	2.4554		AB
	전 체	148	10.7568	2.6767		

* $p < .05$, *** $p < .001$

<표 IV-40>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69	4.0551	.6334	-1.132	
	어머니	81	4.1671	.5775		
연 령	45세 이하	88	4.042	.6428	-1.788	
	46세 이상	62	4.220	.5331		
학 력	중졸이하	39	4.2009	.5776	1.038	
	고졸	87	4.1161	.6293		
	대졸이상	24	3.9750	.5500		
	전 체	150	4.1156	.6044		
종 교	기독 • 천주	39	4.2846	.5626	3.239*	A AB B
	불교	51	4.1477	.5725		
	무교	60	3.9783	.6341		
	전 체	150	4.1156	.6044		
거주지	도시	69	4.1957	.5665	1.504	
	농촌	81	4.0473	.6304		
소득	200만 미만	58	4.1805	.6935	.866	
	300만 미만	43	4.1287	.5652		
	300만 이상	49	4.0272	.5197		
	전 체	150	4.1156	.6044		
직업	판매서비스	23	4.1043	.6702	.623	
	자영업	41	4.1488	.6243		
	전업주부	37	4.2009	.5972		
	기타	49	4.0286	.5670		
	전 체	150	4.1156	.6044		

* $p < .05$

<표 IV-41> 부모의 개방적 성태도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69	3.638	.6480	-.118	
	어머니	81	3.649	.5029		
연 령	45세 이하	88	3.635	.5839	-.219	
	46세 이상	62	3.656	.5596		
학 력	중졸이하	39	3.5342	.5450	.966	
	고졸	87	3.6807	.6085		
	대졸이상	24	3.6875	.4671		
	전 체	150	3.6437	.5722		
종 교	기 독 • 천 주	39	3.6850	.5681	.376	
	불 교	51	3.5882	.5113		
	무 교	60	3.6639	.6270		
	전 체	150	3.6437	.5722		
거 주 지	도 시	69	3.6420	.5263	-.032	
	농 촌	81	3.6451	.6178		
소 득	200만 미만	58	3.5483	.6650	1.968	
	300만 미만	43	3.7752	.5012		
	300만 이상	49	3.6412	.4948		
	전 체	150	3.6437	.5722		
직 업	판매서비스	23	3.6594	.6144	.316	
	자영업	41	3.6496	.7203		
	전업주부	37	3.7050	.4634		
	기타	49	3.5850	.4932		
	전 체	150	3.6437	.5722		

3.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성

1) 청소년 세대의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일반적 경향

<표 IV-42>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교육

<N=153>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평균	표준 편차
성교육	38(24.8)	74(48.4)	39(25.5)	2(1.3)	2.03	.747

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의 성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가 평균적으로 중간 수준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의 없다는 응답이 48.4%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끔 있다 25.5%, 전혀 없다 24.8%로 나타나서, 대략 73%의 고등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응답하였다(표 IV-42). 이는 성교육을 받는 학생이 20%에 불과하다는 이난영(1992)의 결과나, 76.15%의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성교육을 받지 않고 있다고 한 김은자(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연구시점이 10년 이상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성교육 실태는 변화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다음의 표 IV-43은 성교육 내용에 대한 응답으로 12개의 각각의 문항에 대해 성교육을 받았는가에 대한 유무로 측정한 결과를 합산한 것이다. 그 결과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성교육 다양성은 평균 1.74로, 성교육 빈도와 그 내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고등학생들은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V-43).

또한 부모와의 성에 관한 대화 아주 저조한 것을 볼 수 있다. 역

시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성대화는 평균 1.95로 중간 수준을 훨씬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거의 없다는 응답이 51.0%로 절반을 넘었으며, 다음이 전혀 없다 27.5%, 가끔 있다 20.9%로 나타났다(표 IV-44).

<표 IV-43> 청소년의 부모로부터 받은 성교육다양성

<N=153>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교육다양성	.00	7.00	1.74	1.81

<표 IV-44> 청소년의 부모와의 성대화

<N=153>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평균	표준편차
성대화	42(27.5)	78(51.0)	32(20.9)	1(.7)	1.95	.714

2)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세대의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차이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이 부모로부터 받은 성교육빈도와, 성교육의 다양성, 성대화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고 표 IV-45에서 표 IV-47에 제시하였다.

표 IV-45와 표 IV-46, 표 IV-4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자주, 다양하게 받는다고 지각하며, 부모와 성에 관한 대화도 더 자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8-19세

의 고등학생에 비해 더 낮은 연령대의 고등학생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자주 받고 성에 관한 대화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5> 청소년이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성교육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남	76	1.75	.635	-5.004***	
	여	77	2.31	.748		
연령	15-16	57	2.32	.783	10.768***	A
	17	41	2.10	.664		A
	18-19	54	1.70	.633		B
	전체	152	2.04	.745		
종교	기독교·천주	53	1.96	.733	.551	
	불교	26	2.00	.800		
	무교	74	2.09	.743		
	전체	153	2.03	.747		
학교 성적	상	32	2.19	.738	1.202	
	중	94	2.03	.740		
	하	26	1.88	.766		
	전체	152	2.04	.745		
형제 순위	첫째	82	2.15	.739	1.991	
	둘째	51	1.94	.759		
	셋째이하	18	1.83	.707		
	전체	151	2.04	.747		
경제	하	38	1.89	.689	1.560	
	중	96	2.11	.766		
	상	19	1.89	.737		
	전체	153	2.03	.747		

*** p<.001

<표 IV-46> 청소년이 부모세대로부터 받은 성교육다양성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6	1.43	1.68	-2.09*	
	여	77	2.03	1.88		
연 령	15-16	57	1.88	1.90	2.49	
	17	41	2.12	1.76		
	18-19	54	1.33	1.68		
	전 체	152	1.75	1.81		
종 교	기 독 • 천 주	53	1.67	1.72	.68	
	불 교	26	1.42	1.79		
	무 교	74	1.89	1.88		
	전 체	153	1.74	1.91		
학 교 성 적	상	32	2.09	2.07	1.01	
	중	94	1.72	1.74		
	하	26	1.42	1.72		
	전 체	152	1.75	1.81		
형 제 순 위	첫 째	82	1.91	1.85	.66	
	둘 째	51	1.60	1.77		
	셋 째 이하	18	1.50	1.72		
	전 체	151	1.76	1.81		
경 제	하	38	1.53	1.86	1.02	
	중	96	1.89	1.87		
	상	19	1.37	1.30		
	전 체	153	1.74	1.81		

* $p < .05$

<표 IV-47> 청소년과 부모 세대와의 성대화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남	76	1.70	.611	-4.580***	
	여	77	2.19	.726		
연 령	15-16	57	2.23	.756	10.349***	A
	17	41	1.98	.651		A
	18-19	54	1.65	.588		B
	전 체	152	1.95	.713		
종 교	기 독 • 천 주	53	1.89	.698	.910	
	불 교	26	1.85	.732		
	무 교	74	2.03	.721		
	전 체	153	1.95	.714		
학 교 성 적	상	32	2.03	.782	.313	
	중	94	1.95	.678		
	하	26	1.88	.766		
	전 체	152	1.95	.713		
형 제 순 위	첫 째	82	2.04	.744	1.356	
	둘 째	51	1.88	.653		
	셋 째 이하	18	1.78	.732		
	전 체	151	1.95	.715		
경 제	하	38	1.79	.741	2.852	
	중	96	2.05	.701		
	상	19	1.74	.653		
	전 체	153	1.95	.714		

*** p<.001

3) 부모 세대의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일반적 경향

부모세대가 청소년자녀에게 실시한다고 지각하는 성교육 빈도, 그 내용의 다양성, 성대화의 정도는 표 IV-48에서 IV-50에 제시하였다.

<표 IV-48> 부모 세대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성교육

<N=153>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평균	표준 편차
성 교육	38(25.3)	68(45.3)	42(28.0)	2(1.3)	2.05	.767

청소년에 대한 부모의 성교육은 평균 2.05로 중간 수준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48). 구체적으로 거의 없다는 응답이 45.3%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끔 있다 28.0%, 전혀 없다 25.3%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지각한 부모의 성교육과 거의 일치하였다.

<표 IV-49> 부모 세대의 성교육다양성

<N=153>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성 교육다양성	.00	12.00	2.70	2.90

부모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성교육 다양성은 12점 만점에 2.70점으로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0> 부모 세대의 성대화

<N=153>

	전혀 없다	거의 없다	가끔 있다	자주 있다	평균	표준 편차
성대화	32(21.3)	66(44.0)	50(33.3)	2(1.3)	2.15	.763

자녀와의 성대화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평균 2.15로 중간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0). 빈도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거의 없다는 응답이 44.0%로 가장 많고 다음이 가끔 있다 33.3%, 전혀 없다 21.3%로 나타났다.

4) 부모 세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성교육, 성교육다양성, 성대화의 차이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자녀에게 제공하는 성교육의 빈도나, 내용의 다양성, 성대화의 빈도에 차이가 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52에서 표 IV-54에 제시하였다.

<표 IV-51>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성교육빈도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69	1.90	.710	-2.315*	
	어머니	81	2.19	.792		
연령	45세 이하	88	2.18	.810	2.488*	
	46세 이상	62	1.87	.665		
학력	중졸이하	39	1.95	.793	.489	
	고졸	87	2.09	.772		
	대졸이상	24	2.08	.717		
	전체	150	2.05	.767		
종교	기독교·천주	39	2.08	.774	.248	
	불교	51	2.10	.831		
	무교	60	2.00	.713		
	전체	150	2.05	.767		
거주지	도시	69	2.07	.773	.281	
	농촌	81	2.04	.766		
소득	200만 미만	58	1.97	.748	2.313	
	300만 미만	43	1.95	.754		
	300만 이상	49	2.24	.778		
	전체	150	2.05	.767		
직업	판매서비스	23	2.09	.733	.988	
	자영업	41	2.20	.843		
	전업주부	37	2.05	.815		
	기타	49	1.92	.672		
	전체	150	2.05	.767		

* $p < .05$

자녀에 대한 부모의 성교육 빈도는 부모의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즉,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의 경우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 빈도가 높았으며, 연령이 46세 이상보다는 45세 이하인 부모가 성교육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차이를 보였다(표 IV-51).

<표 IV-52> 부모 세대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성교육 다양성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별	아버지	69	2.3333	2.7953	-1.647	
	어머니	81	3.1111	2.9538		
연령	45세 이하	91	3.0659	3.2311	1.914	
	46세 이상	62	2.1613	2.2338		
학력	중졸이하	42	2.6905	3.2422	.208	
	고졸	87	2.6092	2.7167		
	대졸이상	24	3.0417	2.9852		
	전체	153	2.6993	2.8953		
종교	기독교·천주	39	2.9487	2.7333	.295	
	불교	51	2.8627	3.0791		
	무교	60	2.5333	2.8787		
	전체	150	2.7533	2.8986		
거주지	도시	69	2.7536	2.8357	.001	
	농촌	81	2.7531	2.9687		
소득	200만 미만	61	2.2295	2.8189	1.581	
	300만 미만	43	2.7907	2.9483		
	300만 이상	49	3.2041	2.9082		
	전체	153	2.6993	2.8953		
직업	판매서비스	23	2.4348	2.9669	.603	
	자영업	41	3.2195	3.0701		
	전업주부	37	2.8108	2.9424		
	기타	49	2.4694	2.7165		
	전체	150	2.7533	2.8986		

부모의 자녀에 대한 성교육의 다양성은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2).

<표 IV-53> 부모세대와 자녀간의 성에 관한 대화

<N=153>

구 분		N	M	SD	t/F	Duncan
성 별	아버지	69	1.96	.775	-2.885**	
	어머니	81	2.31	.718		
연 령	45세 이하	88	2.28	.772	2.682**	
	46세 이상	62	1.95	.711		
학 력	중졸이하	39	2.18	.790	.392	
	고졸	87	2.10	.748		
	대졸이상	24	2.25	.794		
	전 체	150	2.15	.763		
종 교	기독 • 천주	39	2.15	.745	2.979*	AB A B
	불교	51	2.33	.766		
	무교	60	1.98	.748		
	전 체	150	2.15	.763		
거주지	도시	69	2.17	.685	.402	
	농촌	81	2.12	.827		
소득	200만 미만	58	2.09	.801	.435	
	300만 미만	43	2.14	.710		
	300만 이상	49	2.22	.771		
	전 체	150	2.15	.763		
직업	판매서비스	23	2.13	.757	1.027	
	자영업	41	2.24	.767		
	전업주부	37	2.24	.760		
	기타	49	2.00	.764		
	전 체	150	2.15	.763		

* $p < .05$, ** $p < .01$

부모의 자녀와의 성에 관한 대화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3). 아버지보다는 어머니가,

46세 이상인 부모보다는 45세 이하인 부모가, 그리고 불교, 기독교와 천주교, 무교 순으로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를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청소년-부모 세대간 성의 차이 및 유사성

청소년과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의 차이, 성지식의 차이, 성태도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고 그 결과는 표 IV-54에 표 IV-65에 제시하였다. 성지식과 성태도는 문항별 비교와 합산한 점수의 비교를 제시함으로써 세대간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세대간 성행동규범을 비교하기 위하여 자녀가 딸일 경우와 아들일 경우로 나누어 청소년과 부모 세대의 평균차이 검증을 하였다(표 IV-54와 표 IV-55). 또한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하여 자녀가 딸일 경우와 아들일 경우를 비교분석하였다(표 IV-56).

표 IV-5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성행동규범은 성행동 허용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으며, 유사성보다는 차이점이 더 두드러졌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행동 허용수준이 부모의 성행동 허용수준보다는 높았다. 청소년 자녀가 딸일 경우 손잡기, 포옹, 키스, 애무, 성관계에서는 청소년의 허용수준이 부모 세대에 비해 높았으나, 임신, 낙태, 출산과 같은 심각한 성비행 행동에 대해서는 두 집단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표 IV-55는 청소년 자녀가 아들일 경우 부모 세대의 응

답과 자녀의 응답을 비교분석한 것이다. 표 IV-5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태를 제외한 모든 성행동 허용수준에 대해서 두 집단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즉, 전반적으로 청소년 자녀의 손잡기, 포옹, 키스, 애무, 성관계, 임신, 출산 모두에서 허용수준이 부모 세대보다 더 높았다. 따라서 딸일 경우에 비해 아들일 경우 세대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54>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 자녀가 딸일 경우

<N=153>

구 분		M	SD.	상관관계	t값
손잡기	청소년	4.37	.860	.253**	9.127***
	부모	3.28	1.206		
포옹	청소년	3.94	.878	.215*	11.061***
	부모	2.49	1.309		
키스	청소년	3.39	1.078	.222*	13.861***
	부모	1.73	.981		
애무	청소년	1.75	.935	.309***	5.545***
	부모	1.25	.647		
성관계	청소년	1.38	.756	.147	4.607***
	부모	1.05	.292		
임신	청소년	1.03	.160	-.021	.000
	부모	1.03	.208		
낙태	청소년	1.06	.404	-.023	.173
	부모	1.05	.346		
출산	청소년	1.10	.502	-.020	1.730
	부모	1.02	.187		

*** $p < .001$

<표 IV-55>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 자녀가 아들일 경우

<N=153>

구 분		M	SD	상관관계	t값
손잡기	청소년	4.40	.829	.212*	8.105***
	부모	3.54	1.052		
포옹	청소년	3.98	.882	.151	9.593***
	부모	2.76	1.283		
키스	청소년	3.37	1.053	.224*	10.584***
	부모	2.08	1.152		
애무	청소년	1.90	1.007	.434***	7.486***
	부모	1.29	.631		
성관계	청소년	1.51	.865	.300**	6.047***
	부모	1.06	.276		
임신	청소년	1.06	.230	-.022	2.152*
	부모	1.01	.089		
낙태	청소년	1.06	.395	-.022	.537
	부모	1.04	.294		
출산	청소년	1.12	.500	.158	2.527*
	부모	1.01	.089		

* p<.05 ** p<.01 *** p<.001

다음으로는 자녀성별에 따른 성행동 허용수준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표 IV-56> 부모의 자녀성별에 따른 성행동 허용수준의 차이

<N=153>

구 분		M	SD	상관관계	t값
손잡기	딸	3.33	1.204	.886*	-2.393*
	아들	3.47	1.114		
포옹	딸	2.54	1.317	.918	-3.047**
	아들	2.71	1.349		
키스	딸	1.77	1.010	.857*	-4.524***
	아들	2.05	1.195		
애무	딸	1.23	.612	.862***	-1.518
	아들	1.29	.666		
성관계	딸	1.04	.250	.924**	-1.000
	아들	1.05	.269		
임신	딸	1.01	.103	.	.
	아들	1.01	.103		
낙태	딸	1.04	.325	.	.
	아들	1.04	.325		
출산	딸	1.00	.000	.	.
	아들	1.00	.000		

* p<.05 ** p<.01 *** p<.001

표 IV-54와 표 IV-55를 통해 세대간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표 IV-56에서는 부모 세대의 성행동 허용수준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 자녀가 딸일 경우와 아들일 경우 성행동 허용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즉, 손잡기와 포옹, 키스에서는 딸일 경우보다 아들일 경우가 보다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애무나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한편 임신과 낙태, 출산의 경우에는 통계치가 계산되지 않았다.

2) 세대간 성지식의 차이

성지식을 정답은 1점, 오답은 0점을 부여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일반적 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평균을, 그리고 세대간 성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별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표 IV-57).

먼저 청소년 자녀는 “월경이란 한 달에 한번씩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다”가 정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이며, 부모의 경우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란 문항이 가장 높았다. 반면 오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청소년 자녀와 부모 모두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성적인 충동이 강하다”였다.

평균차이 검증결과 “정자는 자궁 내에 1일 정도, 난자는 2-3일정도 살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임약은 임신된 뒤에 먹는 약이다”, “성병은 반드시 성행위를 통해서만이 걸리는 병이다”, “여자가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의 4개 문항에서만 차이를 보였고, 또한 이들 문항은 청소년 자녀보다는 부모의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임신, 피임, 성병 등의 구체적인 성지식에서는 세대간 차이가 있으나 보편적 성지식에서는 세대간 유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IV-57).

<표 IV-57> 세대간 성지식의 차이: 문항분석

<N=153>

성지식	청소년M (SD)	부 모 M(SD)	t값
1. 월경이란 한 달에 한번씩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90(.298)	.90(.298)	.000
2.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이다	.70(.460)	.75(.437)	-1.152
3. 정자는 자궁 내에 1일 정도, 난자는 2-3일정도 살 수 있다	.30(.460)	.46(.500)	-3.303**
4.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89(.315)	.91(.289)	-.624
5. 태아의 성별은 수정이 된 후에 임신기간 중에 결정되어 진다	.31(.463)	.33(.471)	-.436
6. 여성은 첫 월경이 있는 직후부터 임신이 가능하다	.25(.437)	.19(.393)	1.726
7. 처녀막은 순결의 상징이다	.49(.502)	.41(.494)	1.556
8.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을 예방 한다	.82(.388)	.75(.433)	1.726
9.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임약은 임신된 뒤에 먹는 약이다	.67(.471)	.76(.430)	-2.051*
10. 성병은 반드시 성행위를 통해서만이 걸리는 병이다	.13(.338)	.37(.485)	-5.978***
11.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걸리지 않는다	.61(.488)	.69(.466)	-1.467
12. 여자가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65(.477)	.76(.430)	-2.246*
13. 에이즈는 키스나 칫솔, 면도기 등을 같이 사용하면 걸릴 수 있다	.22(.413)	.22(.417)	-.192
14. 배란은 다음 월경 예정일 전 12-16일 사이에 된다	.55(.499)	.53(.501)	.411
15. 임신초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82(.388)	.82(.382)	-.168
16. 자위행위를 하면 여드름이 생긴다	.44(.499)	.44(.498)	.137
17.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성적인 충동이 강하다	.12(.331)	.14(.352)	-.556
18.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이상 성행동적인 내용이다	.63(.485)	.58(.495)	.911
19. 자위행위는 어른이 되어서 성생활을 방해 한다	.35(.477)	.39(.490)	-.980

* p<.05 ** p<.01 *** p<.001

<표 IV-58> 세대간 성지식의 차이: 합산점수

<N=153>

	N	M	SD	t값
청소년 자녀	153	.5187	.1390	-1.850
부모	153	.5476	.1715	

표 IV-5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간 성지식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평균에 대한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간 성지식에서는 차이보다는 유사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세대간 성태도의 차이

세대간 보수적 성태도의 문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에 대한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59와 같다.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서 불리하다”의 문항만 제외하고 5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 받아야 한다”,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그리고 “결혼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의 문항에서 부모가 높은 점수를 보여 부모 세대의 성태도가 청소년 세대보다 보수적인 경향을 보였다.

<표 IV-59> 세대간 보수적 성태도 차이: 문항분석

<N=153>

보수적 성태도	청소년 M(SD)	부모 M(SD)	t값
1.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3.94(1.022)	4.50(.722)	-6.605***
2.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3.24(1.196)	3.90(1.058)	-5.767***
3.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4.28(.904)	4.51(.829)	-2.582*
5.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4.00(.997)	4.23(.878)	-2.623*
9.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3.96(.854)	4.12(.794)	-1.635
18. 결혼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3.04(1.200)	3.43(1.150)	-3.387**

* $p<.05$ ** $p<.01$ *** $p<.001$

세대간 보수적 성태도의 문항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문항에 대한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60과 같다.

“연인들의 스킨십은 애정표현이다”,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한 것이다”의 문항에서 세대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개방적 성태도를 나타내는 문항 중 4개 문항에서 청소년 세대의 평균 점수가 부모 세대보다 유의미하게 높아 청소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개방적인 성태도 경향을 보였다.

<표 IV-60> 세대간 개방적 성태도 차이: 문항분석

<N=153>

개방적 성태도	청소년 M(SD)	부모 M(SD)	t값
4. 연인들의 스킨십은 애정표현이다.	4.15(.721)	3.63(.909)	6.122***
7.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3.31(.982)	3.10(.909)	2.227*
8.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4.20(.794)	4.01(.839)	2.182*
12.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3.49(.925)	3.46(.910)	.279
14. 남녀 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4.09(.940)	4.15(.865)	-.623
17.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한 것이다.	3.83(.932)	3.53(1.028)	3.041**

* p<.05 ** p<.01 *** p<.001

<표 IV-61> 세대간 성태도의 차이: 종합

<N=153>

구 분		N	M	SD	t값
보수적 성태도	청소년	150	3.7472	.7871	-5.791***
	부모	150	4.1156	.6044	
개방적 상태도	청소년	150	3.8444	.6038	3.374**
	부모	150	3.6437	.5722	

** p<.01 *** p<.001

표 IV-6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간 성태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각각의 성태도의 전체 평균에 대한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 보수적 성태도와 개방적 성태도 모두에서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간 성태도에서는 유사정보다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적 성태도는 청소년 세대보다는 부모 세대가 유의미하게 높았으며, 반대로 개방적 성태도는 부모 세대보다는 청소년 세대가 유의미하게 높아 세대간 성태도에서 차이를 나타냈다.

4) 세대간 성교육의 차이

<표 IV-62> 세대간 성교육의 차이

<N=153>

	N	M	SD	t값
청소년 자녀	150	2.05	.745	-.107
부모	150	2.05	.767	

성교육의 빈도는 “1점은 전혀 없다”, “2점은 거의 없다”, “3점은 가끔이다”, “4점은 자주 있다”로 점수화하여 청소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각각에게 같은 질문을 한 결과 청소년 세대와 자녀 세대 모두 평균 2.05점으로 성교육을 한 적이 거의 없다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간 성교육 빈도에 대한 지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세대간 성교육다양성의 차이

성교육 다양성은 각각의 성교육 내용에 대해 교육을 받은(한) 적이 “있다”는 1점, “없다”는 0점으로 점수화하여 측정하였으며, 세대간

성교육 다양성에 대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2개 문항에 대한 Paired-t test를 실시하였다.

<표 IV-63> 세대간 성교육 다양성의 차이: 문항분석

<N=153>

성교육 다양성	청소년 M(SD)	부모 M(SD)	t값
1. 순결	.27(.444)	.31(.463)	-.925
2. 건전한 이성교제	.45(.499)	.58(.495)	-2.837**
3. 성병	.04(.195)	.12(.331)	-3.250***
4. 생식기 구조 및 생리	.18(.382)	.15(.359)	.729
5. 성충동	.01(.081)	.11(.315)	-3.947***
6. 음란물	.11(.315)	.24(.430)	-3.351***
7. 성폭력·성희롱	.14(.345)	.27(.444)	-3.809***
8. 결혼	.23(.421)	.25(.437)	-.616
9. 자위 행위	.00(.000)	.08(.270)	-3.597***
10. 성도덕(성윤리)	.20(.398)	.29(.459)	-2.266*
11. 성역할	.09(.289)	.19(.393)	-2.850**
12. 피임	.03(.178)	.10(.298)	-2.544*

* $p<.05$ ** $p<.01$ *** $p<.001$

표 IV-6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개 문항 중 순결, 생식기 구조 및 생리, 결혼에 관한 문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대간 지각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부모 세대들은 청소년 세대보다 성교육을 다양하게 교육한다고 지각하였다.

한편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 모두가 건전한 이성교제를 가장 높게 지각한 반면 자위행위를 가장 낮게 지각하여 유사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건전한 이성교제는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그들 부모로부터 교육받은 내용이며, 반면 자위행위는 한명의 청소년도 그것을 주제로 교육받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부모 세대들은 이러한 주제에 대하여 지각하는 정도가 청소년 세대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4> 세대간 성교육 다양성의 지각 차이: 합산점수

<N=153>

	N	M	SD	t값
청소년 자녀	153	1.7386	1.8092	-4.306***
부모	153	2.6993	2.8953	

*** $p < .001$

청소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간 성교육의 다양성의 지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전체 평균에 대한 paired-t test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표 IV-64). 즉, 부모 세대가 청소년 세대보다 성교육의 다양성에서 높게 지각하였다.

6) 세대간 성대화의 차이

성에 관한 대화의 빈도 지각은 “1점은 전혀 하지 않는다”, “2점은 거의 하지 않는다”, “3점은 가끔한다”, “4점은 자주 한다”로 점수화하여 청소년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 각각에게 같은 질문을 하였다.

<표 IV-65> 세대간 성에 관한 대화의 차이

<N=153>

	N	M	SD	t값
청소년 자녀	150	1.95	.717	-3.329**
부모	150	2.15	.763	

** p<.01

청소년 세대는 1.95점, 부모 세대는 2.15점으로 차이를 보였다. 즉 청소년 세대가 부모 세대보다 성에 관한 대화의 빈도를 보다 적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차이를 보였다.

5. 세대간 성행동규범에 관한 모델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밝히기 위해 먼저, 각 세대별 성행동규범을 종속으로 하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고 다음으로 성행동규범의 세대 차이를 종속으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1) 성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모델 검증

<표 IV-66>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 영향 미치는 변인

<N=153>

		청소년의 성행동규범		
		B	Beta	t값
청소년 자녀변수	성지식	.003	.002	.023
	보수적성태도	-.808	-.166	-1.908*
	개방적성태도	1.690	.251	3.003**
	성행동	.487	.260	3.293**
	성교육빈도	.465	.090	.790
	성대화빈도	-.184	-.034	-.340
	성교육다양성	-.112	-.053	-.523
부모변수	성지식	.076	.054	.714
	보수적 성태도	-1.935	-.283	-3.550**
	개방적 성태도	-.116	-.016	-.217
회귀상수		17.373***		
R ²		.381***		

* p<.05, ** p<.01 *** p<.001

표 IV-66은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청소년자녀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관련변수와 부모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의 보수적 성태도, 개방적성태도, 성행동,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은 엄격하고, 개방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은 보다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성행동을 많이 경험할수록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은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은 엄격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67> 부모의 청소년자녀의 성행동규범에 영향 미치는 변인 :

딸일 경우

<N=153>

		부모의 청소년자녀의 성행동규범		
		B	Beta	t값
부모변수	성지식	-.146	-.112	-1.251
	보수적 성태도	-2.335	-.384	-4.010***
	개방적 성태도	.770	.116	1.318
	성교육빈도	.234	.049	.361
	성대화빈도	-.125	-.026	-.217
	성교육다양성	-.293	-.238	-2.153*
청소년 자녀변수	성지식	-.017	-.012	-.123
	보수적 성태도	-.176	-.037	-.366
	개방적 성태도	.594	.096	.982
회귀상수		20.486***		
R ²		.270***		

* p<.05, ** p<.01 *** p<.001

다음으로 표 IV-67과 IV-68은 부모의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규범으로 아들일 경우와 딸일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부모의 성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규명하기 위해 부모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관련변수와 청소년 자녀의 성지식과 성태도를 투입하였다.

표 IV-67은 청소년자녀가 딸일 경우 부모의 성행동규범으로,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와 성교육다양성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전체 9개의 변수는 부모의 딸에 대한 성행동규범을 27% 설명한다.

<표 IV-68> 부모의 청소년자녀의 성행동규범에 영향 미치는 변인 :
아들일 경우

<N=153>

		부모의 청소년 자녀의 성행동규범		
		B	Beta	t값
부모변수	성지식	-.098	-.070	-.833
	보수적 성태도	-1.701	-.252	-2.900**
	개방적 성태도	1.904	.265	3.179**
	성교육빈도	.558	.109	.832
	성대화빈도	-.331	-.065	-.530
	성교육다양성	-.322	-.236	-2.193*
청소년 자녀변수	성지식	-.064	-.041	-.480
	보수적성태도	-.902	-.189	-2.020*
	개방적 성태도	.564	.076	.821
회귀상수		17.172***		
R ²		.281***		

* p<.05, ** p<.01 *** p<.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의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딸의 성행동에 대해서 엄격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딸에게 성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응답할수록 성행동규범이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청소년자녀가 아들일 경우에는 보수적 성태도와 개방적 성태도, 성교육의 다양성, 청소년 자녀의 보수적 성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9개의 변수는 부모의 아들에 대한 성행동규범을 28.1%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이 엄격하고 개방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이 허용적으로 변한다. 또한 자녀에게 성에 관한 교육을 다양하게 할수록 성행동규범은 엄격하며, 청소년 자녀의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부모의 성행동규범이 엄격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에 관한 모델 검증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독립변수로 성지식의 차이와 성태도의 차이를 투입하였다. 세대간 차이는 청소년의 점수에서 부모의 점수를 뺀 점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예를 들어 성행동규범의 차이는 ‘청소년의 성행동규범-부모의 성행동규범’이다. 따라서 점수가 클수록 세대간 차이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이 부모에 비해 더 허용적이라는 의미이다.

표 IV-69를 보면 청소년 자녀가 딸일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가 클수록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일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결과이다. 즉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가 클수록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간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69>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 딸일 경우

<N=153>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B	Beta	t값
성지식 차이	-.056	-.040	-.412
보수적 성태도의 차이	-.946	-.148	-1.576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	1.264	.207	2.089*
회귀상수	4.790***		
R ²	.072*		

* p<.05, ** p<.01 *** p<.001

<표 IV-70>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 아들일 경우

<N=153>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		
	B	Beta	t값
성지식의 차이	-.091	-.068	-.761
보수적 성태도의 차이	-.452	-.080	-.879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	1.588	.243	2.632*
회귀상수	4.012***		
R ²	.72*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 론
2. 정책적 제언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1) 청소년 세대의 성

첫째,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규범은 성행동 경험수준에 비해서는 보다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허용적이라기 보다는 성행동의 심각성 수준별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손잡기, 포옹, 키스 정도의 성행동은 자신들 또래가 행해도 되는 성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애무,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성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태도는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행동 경험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애무나,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성행동은 경험이 거의 없으며 임신, 낙태, 출산과 같이 성비행 행동에 속하는 경험을 한 고등학생이 거의 없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강영삼 등, 1997 ; 김영희, 1993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1996)이 제시한 비율에 비해 상당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청소년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즉, 18-19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성행동규범이 상당히 허용적이며, 성에 대한 태

도가 보다 개방적이고 성행동 경험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학교 편제상 18-19세는 고3에 해당되는 연령집단으로 고1, 고2와 고3이 성행동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은 성교육에 있어서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같은 집단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연령집단에 따른 다양한 성교육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 입시교육에서 고3의 독특성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

2) 부모세대의 성

첫째, 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해 보다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자녀가 아들이거나 딸에 상관없이 청소년자녀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손잡기 정도만을 허용하지 그 이상의 경우는 반대하는 부모가 많으나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는 그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중적 가치관을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성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에서도 남녀차이가 분명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세대에 관계없이 성행동에 있어서는 남녀간의 이중적 가치관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성태도는 개방적 성태도에 비해 보수적 성태도가 높으며, 성지식은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에 차이가 났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적합하다고 인지하는 성행동규범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고졸 이상의 부모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에 비해 허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가정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부모가 그 이하에 비해 성지식이 높고, 보수적 성태도는 종교가 있는 부모가 종교가 없는 부모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도 대략 27%이고 성교육의 다양성에서는 1-2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성에 관해 대화를 하는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사하다. 성지식, 성교육, 성에 관해서 부모와의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성행동과 밀접하다는 결과들(김주희 등, 2003 ; 민하영, 1991 ; 윤경자, 2002)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 부모를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히 성교육에 있어 고등학생 자녀가 지각하는 것에 비해 부모의 지각이 약간 높기는 하나 본 연구결과 우리나라 고등학생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성교육을 거의 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생들의 성정보원이 부모가 아닌 친구나, 잡지 등 다소 비현실적인 출처로부터 성정보를 획득하게 하며 결국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에 문제될 소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따라서 학교교육에서 성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할 뿐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과 학교에서 건전한 성교육을 통해 인간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바로 잡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4) 성에 있어서 부모-자녀 세대간 차이

첫째,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은 성행동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이 부모의 성행동규범 보다 허용적이었으며, 고등학교 자녀가 딸일 경우에 비해 아들일 경우 세대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자녀

가 딸일 경우와 아들일 경우 성행동 허용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벼운 수준의 성행동(손잡기와 포옹, 키스)은 아들일 경우 보다 더 허용적이나 애무나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둘째,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성지식은 임신, 피임, 성병 등 구체적인 문항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서 부모의 성지식이 높았으나 합산한 경우에는 두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태도의 경우는 부모세대와 청소년간의 세대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보수적 성태도는 부모세대가 더 강하고 개방적 성태도는 청소년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나, 부모세대는 보수적 성태도를, 청소년은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성교육, 성교육의 다양성, 성대화에서의 세대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교육 빈도는 두 세대간 유사하나 부모가 자녀에 비해 보다 다양하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와 성태 관련된 대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세대간 차이는 성과 관련하여 세대간 갈등이 소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암시한다.

5) 세대간 성행동규범에 관한 모델분석

첫째,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는 자신들의 성태도와 성행동,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즉, 청소년과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은 엄격하고, 개방적 성태도와 청소년의 성행동 경험이 많을수록, 성행동규범은 허용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성태도를 보다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작업이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둘째, 부모의 성행동규범에는 청소년 자녀가 아들일 경우와 딸일

경우 부모의 성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났다. 먼저 딸일 경우 부모의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딸에게 성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응답할수록 성행동규범이 엄격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일 경우에는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개방적 성태도가 약할수록, 성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성태도가 보수적일 수록 성행동규범이 엄격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 자녀가 딸일 경우 부모와 자녀간의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가 클수록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들일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결과이다. 즉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가 클수록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세대간 성행동규범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대간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성행동경험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또한 부모용을 함께 받아 오게끔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신들의 성행동 경험수준을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만 설문지를 한 것도 이처럼 성행동 경험수준이 낮은 것에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만이 아닌 다양한 고등학교로부터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성행동 경험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충남권에 속한 지역으로부터 수집하였는데 충청도는 예로부터 충효와 예를 중시하는 지역적 특색이 강한 지역이다. 물론 대전과 천안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나 부모의 직업에 농사를 짓는 경우가 포함되어 본 연구의 결과에 영

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2. 정책적 제언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성교육의 정책 변화와 새로운 성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성행동에 대한 규범은 손잡기, 포옹, 키스와 같은 가벼운 성행동에 대해서는 허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애무, 성관계 등 심각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불허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청소년 스스로 성행동의 적정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성과의 접촉이 이루어짐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이성교제가 임신이나 낙태 등과 같은 심각한 성행동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성교제 불허의 입장이나 이성교제가 학업과 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여 왔으나 이젠 이러한 우려에서 탈피하여 이성교제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성교육에서 이성교제시 청소년들이 심각한 성행동을 금기시하는 내용으로 성교육 내용의 전환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둘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지식은 낮은 수준이다. 이는 현재 고등학생을 위한 성교육이 생물학의 한 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정도이거나 입시위주의 교육현실 때문에 성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이 원인이다. 그러나 성이란 주제는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또한 고등학생들의 경우 신체적 발달과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성문화로 인해, 성에 대하여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는 시기인 만큼 이러한 주제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성 관련 문제를 해결하도록 실마리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고등학교 수준에서 성교육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생물학에서만이 아니라 윤리관련 교과목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성을 주제로 한 교육내용이 상당 부분 다루어지도록 성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태도는 허용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측면이 모두 나타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성 문화가 외국 성문화와의 접촉의 과정에서 정착해가는 과도기적 특성 또는 청소년 성규범이 성인의 성규범으로 발달해가는 발달기적 특성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청소년기의 불안정한 성적 발달에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청소년기 이전에 성에 대한 태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특히, 사춘기 이전에 성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실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부터 조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은 물론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교과서의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은 청소년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물론 성관계, 임신 등 심각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모든 청소년들이 공통적으로 허용하지 않거나 실제로 그러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서 볼 때 학교에서의 성교육의 대상을 구별하여 교육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낭비를 막고, 성교육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즉, 성교육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 수준 등 대상에 따라 성규범, 성지식, 성행동 등의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이는 성교육 정책 입안 시에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의 성지식은 청소년보다는 높으나 전체적으로는 낮은 수준이다. 부모는 자녀에겐 성 교육자로서, 성문제 상담가로서,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타자(significant others)

이다.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부모의 성지식은 청소년의 성규범, 성행동 성지식, 성태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이 매스컴, 서적, 강의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이 연구의 부모 자녀관계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가정에서의 성교육 빈도나 대화 등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에서의 성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학교나 청소년 육성 기관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부모 세대와 청소년 세대간 성규범의 차이가 크며, 특히 아들의 경우 부모 세대와의 세대간 차이가 더 크다. 이러한 성규범의 차이는 청소년의 성 가치관의 혼란, 세대간 갈등은 물론 나아가서 가족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세대간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청소년이 부모 세대의 성규범을 따르거나, 반대로 부모가 청소년의 성규범을 따를 수 있다. 절충안으로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서로 절반만큼 양보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또는 청소년의 성행동을 구별하여 어떤 성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 세대의 성규범을 따르고, 반대로 다른 성행위에 대해서는 부모 세대의 성규범을 따른 방법도 가능하다. 후자가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후자에 준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성행동의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손잡기, 포옹, 키스, 애무 등의 성규범은 부모 세대가 인정하고, 성관계, 임신, 출산에 대한 성규범은 청소년 세대가 부모 세대의 성규범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은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 속에서 청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간의 성규범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세대 통합 프로그램은 세대간 협력, 상호작용 및 교환을 증가시키는 활동 또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즉, 청

소년 세대와 부모 세대가 한 자리에서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여 그 속에서 공통의 성규범을 찾아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청소년 육성 기관에 보급, 실시함으로써 세대간 일반적인 차이를 통합함과 동시에 성규범의 차이를 통합할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의 이성교제와 성적 접촉을 금기시하고 있으며 위험하다는 시각이 보편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각은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 청소년기 이성교제와 성적 접촉은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지나친 금기보다는 건전한 방향으로의 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청소년들이 사춘기 이전에 이성교제와 이성과의 성적 접촉에 대한 이해와 편견 없는 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부모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는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병행하여, 학교와 청소년육성기관이 이러한 주제로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병우(1997). 대학생의 성 및 AIDS에 관한 의식 연구, 한국보건교육 학회지, 11(1), 43-55.
- 강영삼, 이기중, 조원호(1997).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조사연구. 교육논총.17권, 159-321, 국민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고애자(1990). 중학교 학생들의 이성친구에 대한 태도 분석.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구자숙·한준·김명언(1999). 세대격차와 갈등의 사회심리적 구조, 심리과학, 8(1), 123-139.
- 곽이영(2001). 컴퓨터를 이용한 음란선 전자영상물이 청소년의 성에 대한 정서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이중(1997). 청소년학 개론, 교육과학사.
- 권현주(1998). 대학생들의 성의식에 대한 태도 유형 Q-방법론적 접근,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1998). 가족가치관의 세대별 비교연구-노년, 중년, 청소년세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6(10), 145-161.
- 김기태 (2000). 인터넷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및 대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기환 (1999). 청소년의 성행위에 대한 고찰,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회, 198-208.
- 김명언, 김의철, 박영신(2000). 청소년과 성인간의 세대차이와 유사성.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문제, 6(1), 181-204.
- 김명희(1983). 서울시내 일부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의식, 성행동 조사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김민(2002). 청소년 사이버섹스 중독에 대한 조사 연구. 한국청소년 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발표집.
- 김병준(1993). 한국 10대 청소년의 성성구조에 관한 연구, 고대 석사학위논문.
- 김상원, 이양재, 박순정, 김수련, 송은일(1997). 여고생의 성의식 및 실태조사, 한국성문화연구소.
- 김소야자(1986). 도시 청소년의 성에 대한 지식과 태도 조사. 연세대학교 간호학 논집, 9, 1~12.
- 김신자(1996). 청소년의 성과 사랑에 관한 일 연구, 전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자(2000). 청소년의 성지식 획득 경로에 대한 연구,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희, 송은일, 강성희(2003). 성태도·성행동과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연구: 남녀 대학생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4(1), 111-124.
- 김영희(1993).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이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화(1991). 청소년 성지식과 태도 및 행동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원중(2000). 청소년 성문제의 이해와 지도. 교육이론실천,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42-251.
- 김의철·박영신·김명연·이건우·유호식(2000). 청소년, 성인, 노인 세대의 차이와 생활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5(1), 119-145.
- 김태근(1998). 청소년의 성의식, 성행동과 비행의 관계: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숙(1999). 대학생의 성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2(2), 339-356.

- 김현정 · 이귀옥(2000). 남녀 청소년의 성지식 차이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 연구, 7(2), 161-182.
- 김혜원(2002). 고등학생들의 성관련 경험에 대한 학생 · 성인집단의 반응비교, 청소년학연구, 9(2), 113-138.
- 김혜원 · 이해경(2002). 고등학생들의 성행동 경험 분석:성별, 학교별, 거주지별 비교, 청소년학 연구, 9(1), 247-272.
- 남영옥 · 이상준(2002). 청소년의 사이버섹스 중독과 사이버음란물 접촉 및 성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9(3), 185-212.
- 문용린(1996). 신세대의 이해 -그들의 의식과 유형,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삼성복지재단.
- 민하영(1991). 청소년 비행정도와 부모자녀 의사소통, 가족의 응집 및 적응과의 관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윤창 · 김근영 · 윤진(1996). 음란출판물 접촉과 청소년의 성관련 태도 및 비행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9(2), 79-90.
- 박재홍(2001). 세대 연구의 이론적 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 47-48.
- 박희성 · 이지숙 · 박초아 · 정민자(1995). 미혼 남녀의 성행동 실태와 혼전 성에 대한 태도, 대한 가정학회지, 106, 11-123.
- 배성미(2002).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류진혜 · 강재연 · 김재환(1995). 대학생의 성에 대한 실태조사. 대학생활연구, 13, 17-55.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1996)
- 성윤숙(1998). PC를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 음란 영상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및 규제 실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성한기(1996). 대학생들의 성에 관한 태도와 행동.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연구논문집, 52, 207-227.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학지사.
- 신은숙(1976). 세대간의 갈등문제와 교육, 교육학연구, 14(1), 59-69.
- 안창선(1994). 한국 10대의 성적태도와 행동에 관한 연구조사, 학생생활연구, 19, 춘천교육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연문희 등(1997). 연세대학교 재학생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의식 및 태도연구. 연세상담연구, 13, 91-125.
- 오생근·윤혜준(1998). 성과 사회, 서울:나남출판
- 오옥자(1977). 성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가효(1997). 청소년의 성문화와 성교육프로그램 방향모색, 과학논총, 23(1), 계명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1-10.
- 윤경자(1985). 대학생들의 혼전 성허용도에 관련된 변인들, 대한가정학회지, 33(4), 251-263.
- 윤경자(2002). 청소년의 원하지 않는 성행동의 발생과 관련 위험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1), 179-194.
- 윤경자(2002). 중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성행동과 관련된 요인들, 대한가정학회지, 40(8), 107-121.
- 이계화(1988).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나영(1999). 포르노 섹슈얼리티 그리고 페미니즘, 서울:서원.
- 이난영(1992). 여자중학교의 성교육 실천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명화(1998). 음란매체 접촉에 따른 성갈등에 성태도와 지식이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문희(1993). 도시 청소년의 성의식 및 성문제와 성교육에 관한 조사연구:성교육 실시의 타당성과 성교육 지도방향 개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문(1995). 청소년의 성적 허용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 이춘화 · 이정애(1995). 청소년의 이성교제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 70-77.
- 이은영(1997). 성교육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이재창 등(1986). 청소년의 행동성향에 관한 연구, 대학교육연합회.
- 이창식 · 김윤정(2003). 청소년이 지각하는 노인의 성에 대한 태도. 한국청소년연구, 14(1), 37-62.
- 이창식 · 김윤정(2003). 청소년의 사랑과 성태도: 남학생과 여학생의 지각차이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0(1), 277-296.
- 이현규(1996). 영상매체가 청소년 성행동에 미치는 실태분석, 세종대학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전용호(1996). 정신지체아와 성, 서울:파란나라.
- 장필화(1989). 성에 관련된 여성 해방론의 이해와 문제, 한국여성학, 5, 11-25.
- 정경화(1996). 여고생의 이성의식 향상을 위한 이성교육프로그램개발 및 효과, 부산대 석사학위논문.
- 정성채(1981). 여고생들의 혼인과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 조사 연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원식 등(1985). 청소년의 의식구조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정태연(2000). “대학생 자녀와 그 부모가 평가한 세대간 차이점과 유사점”, 한국심리학회지:사회문제, 7(2), 1~19.
- 정종희(1983). 어머니의 성 역할 태도가 딸에게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3.
- 조아미(2001). 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유형과 교육적 시사점,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보고 00-R 65

- 조성남·윤옥경(2000). 가치관과 행위양식간의 세대간 차이와 유사성. 사회과학연구논집 5권, 1-20.
- 조혜선(1990). 한국사회의 세대구분과 세대차이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경숙(2003). 중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충남 청소년 종합상담실(1995). 연구보고서.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한국과 세계청소년의 의식, 한국갤럽조사연구소
- 한성현·이경선·이선희(2000). 서울 지역 일부 고등학생들의 성행태 및 관련요인 분석,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학회, 17, 19-39.
- 홍봉선(2000). 청소년 성주체성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79-117.
- 한국갤럽조사연구소(1990).
- 황경식(1994). 도덕성의 위기인가 합리성의 위기인가, 철학과 현실, 겨울호, 서울:철학과 현실사.
- Anderson, B. E.(1973). Misunderstandings between generations: A general phenomenon? Scandinavi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7, 1-10.
- Bengston, V. L., Culter, N. E., Mangen, D. J., & Marshall, V. W.(1985). Generation, cohort, and relation between age groups. R. H. Binstock & E. Shanas(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2nd ed., New York:VNR, 304-338.
- Cox, F. D.(1999). Human intimacy : marriage, the family, and its meaning,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Carr. D.(1991). Educating Virtue, London:Rputledge & Kegan.
- Darling, C. A. & Hicks, M. W. (1982). Parental influence on adolescent sexuality: Implications for parents as educator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1, 231-245.
- Fondell, M., Hu, P. N., Kowaleski-Johnes, L., Menaghan, E. G., & Mott, F.(1996). The determinants of first sex by age 14 in a high-risk adolescent population,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8, 16-18.
- Hendrick, C., & Hendrick, S.(1987).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4, 281-297.
- Jaccard, J., Dittus, P. J., & Gordon, V. V.(1996). Maternal correlates of adolescent sexual and contraceptive behavior.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8, 159-165.
- Karl, L. D., & Gabriele, R.(2001). Adolescence-adynamic concept, Reproductive Health Matters, 9(17), 11
- Mannheim, K.(1952).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London:Routledge & Kegan Paul.
- Manning, M. L.(1983). Three myths concerning adolescence. Adolescence, 18, 823-829.
- Mensch, B. S., Clark, W. H., Lloyd, C. B., & Erulkar, A. S.(2001). Premarital sex, schoolgirl pregnancy, and school quality in rural Kenya, Studies in Family Planning, 32(4), 285-290.
- O'Donnell, L., O'Donnell, C. R., & Stueve, A.(2001). Early sexual initiation and subsequent sex-related risk among urban-minority youth:The reach for health study,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3(6), 268-280.

- Quadagno, J.(2002), Aging and the Life Course, McGraw-Hill Company.
- Scales, P. & Everly, K.(1977). A community sex education program for parents. The Family Coordinator, January, 37-45.
- Silverston, R.(1989). Healthy adolescent sexual development, SIECUS Report, oct./nov. 1-3.
- Thornton, A., Alwin, D. F., Camburn, D. C.(1983). Cases and consequences of sex-role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8, 211~227.
- Traub, S. H. & Dodder, R. A.(1988). Intergenerational conflict of values and norms: a theoretical model, Adolescence, 23 (92), 975-982.
- Weinstein, M. & Thornton, A.(1989). Mother-child relations and adolescent sexual attitudes and behaviors, Demography, 26(4), 563-577.

부 록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연구

<부 록>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연구

아버지용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고등학생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세대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확산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숫자로 바뀌어 분석되기 때문에 귀하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학술 논문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한서대학교 청소년성규범연구팀

이창식 · 김윤정 교수

연락처 : csl@hanseo.ac.kr

1. 다음은 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하십시오.

	전 혀 그렇지 않 다	별 로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2.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3.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4. 연인들의 스킨쉽은 애정표현이다					
5.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6. 요즈음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7.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8.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9.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10. 과도하게 노출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					
11.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랑 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2.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3. 여자는 성적 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야 한다					
14. 남녀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15.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진다					
16.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17.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 한 것이다					
18. 결혼 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II. 다음은 귀하의 성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월경이란 한 달에 한번씩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2.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이다			
3. 정자는 자궁 내에 1일 정도, 난자는 2-3일정도 살수 있다			
4.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5. 태아의 성별은 수정이 된 후에 임신기간 중에 결정되어 진다			
6. 여성은 첫 월경이 있는 직후부터 임신이 가능하다			
7. 처녀막은 순결의 상징이다			
8.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을 예방한다			
9.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임약은 임신된 뒤에 먹는 약이다			
10. 성병은 반드시 성행위를 통해서만이 걸리는 병이다			
11.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걸리지 않는다			
12. 여자가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13. 에이즈는 키스나 칫솔, 면도기 등을 같이 사용하면 걸릴 수 있다			
14. 배란은 다음 월경 예정일 전 12-16일 사이에 된다			
15. 임신초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16. 자위행위를 하면 여드름이 생긴다			
17.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성적인 충동이 강하다			
18.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이상 성행동적인 내용이다			
19. 자위행위는 어른이 되어서 성생활을 방해한다			

Ⅲ. 고등학생 자녀의 성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딸 중 한명만 있더라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딸일 경우					이성친구와(에게)	자녀가 아들일 경우				
절대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허용	적극 허용		절대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허용	적극 허용
					1. 손을 잡는다					
					2. 포옹한다					
					3. 키스한다					
					4. 애무를 한다					
					5. 성관계를 갖는다					
					6. 임신을 하거나 시킨다					
					7. 낙태를 하거나 시킨다					
					8. 아기를 낳는다					

Ⅳ. 다음은 고등학생 자녀와의 성과 관련된 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2.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입니까? 모두 체크하세요.

- ① 성교육을 한 적이 없다 ② 순결교육
③ 건전한 이성교제 ④ 성병

- ⑤ 생식기 구조 및 생리
- ⑥ 성충동에 관한 내용
- ⑦ 음란물에 관한 내용
- ⑧ 성폭력이나 성희롱
- ⑨ 결혼과 관련된 내용
- ⑩ 자위행위
- ⑪ 성도덕(성윤리)
- ⑫ 남녀의 성역할 차이
- ⑬ 피임교육

3. 고등학생 자녀와 청소년기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대화를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 ②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가끔 한다
- ④ 자주 한다

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교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가 없다 ⑤ 기타

5.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 ① 대도시(서울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 ② 중소도시(대도시 외의 도시) ③ 농촌(읍/면)

6. 한달 가정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만원

7. 귀하의 직업은?

-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판매·서비스·생산직
④ 자영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

8.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 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연구

어머니용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고등학생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세대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확산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숫자로 바뀌어 분석되기 때문에 귀하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학술 논문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한서대학교 청소년성규범연구팀

이창식 · 김윤정 교수

연락처 : csl@hanseo.ac.kr

1. 다음은 성과 관련된 문항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하십시오.

	전 혀 그렇지 않 다	별 로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2.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3.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4. 연인들의 스킨쉽은 애정표현이다					
5.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6. 요즈음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7.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8.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9.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10. 과도하게 노출한 여자의 옷차림 성적 욕 구를 유발한다					
11.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랑 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2.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3. 여자는 성적 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야 한다					
14. 남녀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15.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진다					
16.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17.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 한 것이다					
18. 결혼 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II. 다음은 귀하의 성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월경이란 한 달에 한번씩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2.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이다			
3. 정자는 자궁 내에 1일 정도, 난자는 2-3일정도 살수 있다			
4.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5. 태아의 성별은 수정이 된 후에 임신기간 중에 결정되어 진다			
6. 여성은 첫 월경이 있는 직후부터 임신이 가능하다			
7. 처녀막은 순결의 상징이다			
8.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을 예방한다			
9.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임약은 임신된 뒤에 먹는 약이다			
10. 성병은 반드시 성행위를 통해서만이 걸리는 병이다			
11.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걸리지 않는다			
12. 여자가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13. 에이즈는 키스나 칫솔, 면도기 등을 같이 사용하면 걸릴 수 있다			
14. 배란은 다음 월경 예정일 전 12-16일 사이에 된다			
15. 임신초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16. 자위행위를 하면 여드름이 생긴다			
17.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성적인 충동이 강하다			
18.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이상 성행동적인 내용이다			
19. 자위행위는 어른이 되어서 성생활을 방해한다			

Ⅲ. 고등학생 자녀의 성행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겠습니까? (아들, 딸 중 한명만 있더라도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자녀가 딸일 경우					이성친구와(에게)	자녀가 아들일 경우				
절대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허용	적극 허용		절대 반대	약간 반대	중간	약간 허용	적극 허용
					1. 손을 잡는다					
					2. 포옹한다					
					3. 키스한다					
					4. 애무를 한다					
					5. 성관계를 갖는다					
					6. 임신을 하거나 시킨다					
					7. 낙태를 하거나 시킨다					
					8. 아기를 낳는다					

Ⅳ. 다음은 고등학생 자녀와의 성과 관련된 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2. 자녀에게 성교육을 하는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입니까? 모두 체크하세요.

- ① 성교육을 한 적이 없다 ② 순결교육
③ 건전한 이성교제 ④ 성병

- ⑤ 생식기 구조 및 생리 ⑥ 성충동에 관한 내용
- ⑦ 음란물에 관한 내용 ⑧ 성폭력이나 성희롱
- ⑨ 결혼과 관련된 내용 ⑩ 자위행위
- ⑪ 성도덕(성윤리) ⑫ 남녀의 성역할 차이
- ⑬ 피임교육

3. 고등학생 자녀와 청소년기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대화를 하십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V.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1. 성별 : ① 남 ② 여

2. 연령 : 만 ()세

3. 귀하의 학력은?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교 이상

4. 귀하의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가 없다 ⑤ 기타

5. 귀하가 현재 거주하는 지역은?

- ① 대도시(서울시, 인천, 대전, 부산, 대구, 울산, 광주)
- ② 중소도시(대도시 외의 도시) ③ 농촌(읍/면)

6. 한달 가정 평균 소득은 얼마입니까? () 만원

7. 귀하의 직업은?

- ① 전문직 ② 사무·관리직 ③ 판매·서비스·생산직
④ 자영업 ⑤ 전업주부 ⑥ 기타

8. 귀하의 결혼상태는?

- ① 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연구

청소년용

--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한국청소년개발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고등학생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세대간 유사성과 차이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건전한 청소년 성문화 확산을 위해 작성된 것입니다.

본 설문지에는 옳고 그른 답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숫자로 바뀌어 분석되기 때문에 귀하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본 설문지의 결과는 학술 논문의 자료로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부디 한 문항도 빠짐없이 사실 그대로 솔직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04년 5월

한서대학교 청소년성규범연구팀

이창식 · 김윤정 교수

연락처 : csl@hanseo.ac.kr

1. 다음은 성에 대한 청소년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곳에
V표 해주십시오.

	전 혀 그 렇 지 않 다	별 로 그 렇 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 체 로 그 렇 다	매 우 그 렇 다
1. 여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2. 혼전 성관계는 남녀 모두 비난받아야 한다					
3. 매춘행위는 없어져야 한다					
4. 연인들의 스킨십은 애정표현이다					
5. 순결은 남자도 지켜야 한다					
6. 요즈음의 성문화는 개방적이다					
7. 자위행위는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는 수단이다					
8. 성에 대해 호기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9. 혼전 성관계는 여자에게 불리하다					
10. 과도하게 노출한 여자의 옷차림은 성적 욕구를 유발한다					
11.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사랑 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12.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13. 여자는 성적 표현을 수동적으로 해야 한다					
14. 남녀관계에 있어 성은 중요한 것이다					
15. 성관계를 가진 친구들이 주위에 많으면 그들과 어울리기 위해서라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도 성관계를 가진다					
16. 나는 순결하지 않아도 배우자는 순결해야 한다					
17. 사랑하는 사람과의 신체적 접촉은 당연 한 것이다					
18. 결혼 전 성관계는 비도덕적인 행위이다					

II.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의 성지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입니다.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1. 월경이란 한 달에 한번씩 자궁에서 나오는 출혈이다			
2. 정자를 만드는 곳은 고환이다			
3. 정자는 자궁 내에 1일 정도, 난자는 2-3일정도 살수 있다			
4. 임신이란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현상이다			
5. 태아의 성별은 수정이 된 후에 임신기간 중에 결정되어 진다			
6. 여성은 첫 월경이 있는 직후부터 임신이 가능하다			
7. 처녀막은 순결의 상징이다			
8. 콘돔을 사용하면 임신과 성병을 예방한다			
9. 우리나라에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피임약은 임신된 뒤에 먹는 약이다			
10. 성병은 반드시 성행위를 통해서만이 걸리는 병이다			
11.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는 사람은 또 다시 걸리지 않는다			
12. 여자가 임신 중에 성병에 걸리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13. 에이즈는 키스나 칫솔, 면도기 등을 같이 사용하면 걸릴 수 있다			
14. 배란은 다음 월경 예정일 전 12-16일 사이에 된다			
15. 임신초기에 항생제를 먹으면 태아에게 해를 끼쳐 기형아가 나올 수 있다			
16. 자위행위를 하면 여드름이 생긴다			
17. 남성이 여성보다 훨씬 더 성적인 충동이 강하다			
18. 포르노에서 보여주는 성행동은 대부분의 경우 이상 성행동적인 내용이다			
19. 자위행위는 어른이 되어서 성생활을 방해한다			

III. 이성친구와의 성행동에 대한 경험 수준과 허용 수준에 관한 질문입니다.

경험 수준			이성친구와(에게)	허용 수준				
그런 적 없다	그런 적 있다	자 주 그렇다		절 대 반 대	약 간 반 대	중 간	약 간 허 용	적 극 허 용
			1. 손을 잡는다					
			2. 포옹을 한다					
			3. 키스를 한다					
			4. 애무를 한다					
			5. 성관계를 갖는다					
			6. 임신을 하거나 시켰다					
			7. 낙태를 하거나 시켰다					
			8. 아기를 낳는다					

IV. 다음은 부모님과의 성과 관련된 대화에 관한 질문입니다.

1.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가끔 있다 ④ 자주 있다

2. 부모님으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입니까?
모두 체크하세요.

- ① 성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② 순결교육
③ 건전한 이성교제 ④ 성병

- ⑤ 생식기 구조 및 생리 ⑥ 성충동에 관한 내용
- ⑦ 음란물에 관한 내용 ⑧ 성폭력이나 성희롱
- ⑨ 결혼과 관련된 내용 ⑩ 자위행위
- ⑪ 성도덕(성윤리) ⑫ 남녀의 성역할 차이
- ⑬ 피임교육

3. 부모님과 청소년기의 성행동규범에 관한 대화를 합니까?

- ① 전혀 하지 않는다 ② 거의 하지 않는다
- ③ 가끔 한다 ④ 자주 한다

Ⅷ. 다음은 청소년 여러분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것입니다.

1. 성별 ① 남 ② 여
2. 나이 : 만 ()세
3. 종교는?
 -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종교가 없다 ⑤ 기타
4. 재학중인 학교의 계열은?
 - ① 인문계열 ② 실업계 ③ 특수목적고
5. 남녀공학입니까? ① 그렇다 ② 아니다
6. 학교의 성적은?
 - ① 상위권 ② 중위권 ③ 하위권

7. 귀하는 형제자매 중 몇째입니까?

()남 ()녀 중 ()째

8.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에 속한다

- ① 하류층 ② 중하류층 ③ 중류층
④ 중상류층 ⑤ 상류층

【연 구 요 약】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태도는 개방적이고 허용적인 경향이 짙어지고 있으며 성관계를 경험하는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성인의 시각에서 접근하는 국내외의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성=비행’이라는 공식으로 연구를 진행시킴으로서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적합한 성행동의 규범, 즉 청소년들이 허용하는 자신들의 성행동의 한계가 어느 수준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무관심하였다. 성인의 성행동규범을 청소년에게 적용시킴으로서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았고, 따라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이성교제, 포옹, 키스, 성관계 등)의 성행동을 비행으로 규정함으로서 청소년들과 성인세대의 성행동규범의 차이를 오히려 벌어지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차이점과 유사성을 파악함으로서 청소년들의 성을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세대의 성, 부모세대의 성, 청소년-부모관계와 청소년의 성, 성에 있어서 부모-자녀간 세대간 차이 및 유사성, 세대간 성행동규범 모델을 검증하고자, 고등학생과 그들의 부모로 구성된 총 300명에 대한 자료를 얻기 위해 2004년 5월 24일부터 2004년 6월 4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전과 천안에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생용 180부를 배부하였고 부모용 180부는 그 학생들을 통해 배부하고 회수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남녀학생과 아버지와 어머니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 편의표집을 하였다. 즉, 남자고등학생과 아버지용 45부, 남자고등학생과 어머

니용 45부, 여자고등학생과 아버지용 45부, 여자고등학생과 어머니용 45부를 배부하였다. 총 155쌍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그 중 2쌍의 데이터는 자료 분석에 적합지 않아 제외하였다. 최종적으로 153쌍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는데, 남자고등학생 76명, 여자고등학생 77명, 아버지 69명, 어머니 81명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남자고등학생이 49.7%, 여자고등학생이 50.3%로 남녀비율이 각각 절반정도이다. 연령은 15세에서 19세까지로 주로 16, 17, 18세가 많고 다음이 15, 19세 순이다. 고등학생들의 부모는 아버지가 45.1%, 어머니가 54.9%로 어머니로부터 설문응답을 받아온 경우가 대략 10%정도 더 많다. 부모의 연령은 40대가 82.9%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 45세이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56.9%로 가장 많고 대졸과 중졸이 비슷한 수치를 이룬다. 가정소득은 평균 262만원이며 부모님의 결혼상태는 기혼이 95.4%로 본 연구의 대상인 청소년들이 결혼가정보다는 안정적인 가정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위한 설문지는 청소년용과 부모용으로 나뉘어 작성되었다. 청소년용은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부모와의 성에 관한 대화, 성교육빈도, 성교육 내용,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구성하였다. 부모용은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자녀와의 성에 관한 대화, 성교육빈도, 성교육내용, 사회인구학적 변수로 구성하였다.

성행동규범은 청소년의 성행동에 대한 허용성 수준을 의미한다. 즉, 청소년의 성행동으로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성행동 허용 수준을 측정하였다. 성행동규범은 이성교제, 포옹, 키스, 애무,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의 8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절대반대(1점)에서 적극허용(5점)으로 측정하였다.

성지식은 최경숙(2002)과 배성미(2002)의 성지식 척도에서 문항을 선별하였다. 총 19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의 3점 척도이다. 분석에서는 정답은 1점, 오답과 잘 모르

겠다는 0점을 주어 재코딩하였으며, 0점~19점의 분포를 가진다.

성태도는 조아미(2001)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최종적으로 18개의 문항을 선별하였다. 문항선별은 조아미(2001)의 척도를 이용한 본 연구자의 두 번에 걸친 연구(이창식·김윤정, 2003a; 이창식·김윤정, 2003b)의 자료를 각기 따로, 그리고 합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18문항을 선별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리커트형 척도이며 요인분석을 통해 척도를 재구성하였다. 요인분석결과 보수적 성태도와 개방적 성태도로 나뉘어졌다.

부모-자녀 관계는 성교육 빈도, 성교육 내용 및 성에 관한 대화로 측정하였다. 성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가?, 성교육을 받은 경우 어떤 내용에 관한 것인가? 성행동규범에 대해 대화를 하는가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마지막으로 일반사항은 청소년의 성별, 연령, 종교, 성적, 형제 순위, 경제수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 설문지는 부모의 성별, 연령, 학력, 종교, 거주지, 한달 평균 소득, 직업, 결혼상태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분석은 Window용 SPSS 11.0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세대의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등학생들의 성행동규범은 성행동 경험수준에 비해서는 보다 허용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행동에 대해서 허용적이라기 보다는 성행동의 심각성 수준별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생들은 손잡기, 포옹, 키스 정도의 성행동은 자신들 또래가 행해도 되는 성행동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애무, 성관계, 임신, 낙태, 출산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에게 적합한 성행동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의 성에 대한 지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태도는 보수적이면서 개방적인 이중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행동경험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고등학생들의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여러 측면에서 두드러졌다. 즉, 18-19세의 고등학생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해 성행동규범이 상당히 허용적이며, 성에 대한 태도가 보다 개방적이고 성행동 경험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모세대의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부모의 경우에는 청소년들에 비해 청소년들의 성행동규범에 대해 보다 보수적임을 알 수 있다. 즉, 청소년 자녀가 아들이거나 딸에 상관없이 청소년자녀의 성행동에 대해서는 손잡기 정도만을 허용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는 반대하는 부모가 많으나, 아들에 비해 딸의 경우는 그 비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성별에 따른 이중적 가치관을 볼 수 있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의 성태도는 개방적 성태도에 비해 보수적 성태도가 높으며, 성지식은 중간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라 성행동규범, 성지식, 성태도에 차이가 났다. 청소년기 자녀에게 적합하다고 인지하는 성행동규범은 부모의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서 대체로 고졸이상의 부모가 그 이하의 학력을 가진 부모에 비해 허용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은 가정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부모가 그 이하인 부모에 비해 성지식이 높고, 보수적 성태도는 종교가 있는 부모가 종교가 없는 부모에 비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자녀관계와 청소년의 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들이 부모로부터 성교육을 받은 경우는 대략 27%이고 성교육의 다양성에서는 1-2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해서만 성교육을 받고 있으며, 또한 부모와 성에 관해 대화를 하는 빈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세대를 대상으로 했을 때도 유사하다.

넷째, 성에 있어서 부모-자녀 세대간 차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은 성행동의 수준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이 부모의 성행동규범 보다 허용적이었으며, 고등학교 자녀가 딸일 경우에 비해 아들일 경우 세대간 차이가 더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세대의 성행동규범에 대한 이중적 가치관을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자녀가 딸일 경우와 아들일 경우 성행동 허용수준을 비교분석한 결과, 가벼운 수준의 성행동(손잡기와 포옹, 키스)은 아들일 경우 보다 더 허용적이나 애무나 성관계와 같이 심각한 성행동에 대해서는 아들이건 딸이건 간에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다음으로 청소년세대와 부모세대간 성지식은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태도의 경우는 부모세대와 청소년간의 세대간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부모세대는 보수적 성태도를, 청소년은 개방적 성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성교육, 성교육의 다양성, 성대화에서의 세대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교육 빈도는 두 세대간 유사하나 부모가 자녀에 비해 보다 다양하게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녀와 성에 관련된 대화도 많이 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섯째, 세대간 성행동규범에 관한 모델 분석결과, 청소년의 성행동규범에는 자신들의 성태도와 성행동,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즉, 청소년과 부모의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성행동규범은 엄격하고, 개방적 성태도와 성행동이 높을수록 성행동규범은 허용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모의 성행동규범에는 청소년 자녀가 아들일 경우와 딸일 경우 부모의 성행동규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먼저 딸일 경우 부모의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그리고 딸에게 성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한다고 응답할수록 성행동규범이 엄격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들일 경우에는 보수적 성태도가 강할수록, 개

방적 성태도가 약할수록, 성교육을 다양하게 제공했다고 인식할수록, 청소년 자녀의 성태도가 보수적일수록 성행동규범이 엄격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행동규범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청소년 자녀가 딸이건 아들이건 간에 개방적 성태도의 차이가 클수록 세대간 성행동규범에 차이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는 다음 몇 가지의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 본 연구 대상자의 성행동경험수준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방법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수업시간에 담임선생님을 통해 설문지를 배부했으며 또한 부모용을 함께 받아 오게끔 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자신들의 성행동 경험수준을 학교의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하여 솔직한 응답을 회피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또한 인문계고등학교에서만 설문지를 한 것도 이처럼 성행동 경험수준이 낮은 것에 한 몫을 했다고 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인문계고등학교만이 아닌 다양한 청소년으로부터의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의 성행동 경험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존 성교육의 정책 변화와 새로운 성교육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현장에서 이성교제를 무조건 금기시하는 성교육에서 이성교제시 청소년들이 심각한 성행동을 금기시하는 내용으로 성교육이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수준에서 성교육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생물학에서만 아니라 윤리관련 교과목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성을 주제로 한 교육내용이 상당 부분 다루어지도록 성교육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춘기가 시작되기 전인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부터 조기 성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육과정의 개편은 물론 5-6학년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 교과서

의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성교육의 대상에 따라 성규범, 성지식, 성행동 등의 교육내용이 달라져야 할 것이며, 이는 성교육 정책 입안 시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성교육이 매스컴, 서적, 강의 등 다양한 사회교육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학교에서의 성교육이나 청소년 육성 기관에서의 성교육을 강화하여 가정에서의 성교육의 부재를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성행동의 심각하지 않은 수준인 손잡기, 포옹, 키스, 애무 등의 성규범은 부모 세대가 인정하고, 성관계, 임신, 출산에 대한 성규범은 청소년 세대가 부모 세대의 성규범을 따르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회적 여건의 조성은 물론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해야 할 것이다.

여덟째, 세대간 통합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청소년 육성 기관에 보급, 실시함으로써 일반적인 세대간 차이를 통합함과 동시에 성규범의 차이도 좁힐 수 있을 것이다.

아홉째, 학부모의 이성교제를 금기시하는 시각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과 병행하여, 학교와 청소년 육성 기관이 이러한 주제로 성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